雲門

불기 2565년
여름호
통권 제156호
雲門寺僧伽大學

구름문을 펼치다

- 꽃 여름, 활기차게! / 대교과 선오
- 여름이다~!!! 우리의 수행 열정도 뜨겁다. / 대교과 무득
- 밝은 달처럼 빛나는 해처럼 뜨거운 여름, 마음만은 밝고 빛나게~! / 대교과 혜등
- 웃음 가득 행복한 날 되소서~ / 사교과 진아
- 시원하게 땀 빼며 상쾌한 여름을 맞이해 봐요~. / 사교과 현밀
- 무더운 열기를 기꺼이 받아들여 수행 정진합시다! / 사교과 효민
- 이 여름 우리에겐 부처가 있지 아니한가. / 사집과 범덕
- 선풍기에 손이 절로 가는 이 여름, 현장 법사께서는 불타는 사막을 어찌 건너셨을꼬? 감사하고 감사할 따름이다. / 사집과 서묵
- 무위를 구름 가득한 운문의 여름에서 공부하네. / 사집과 안정
-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무덥지만 참고 이겨내기를~ / 사미니과 해탈향
- 不折我면 無以學이니라-나를 꺾지 않으면 배울 수 없다-배움에 정진하는 여름이길~ / 사미니과 도솔

불기2565(2021)년 통권 제156호 여름호

雲門

목차

02 호거산 운문사 구름문을 펼치다

04 죽림헌 평상심이 도다(平常心是道) 명성

06 교수논단 운문사승가대학 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회고와 전망 1 은광

10 수행, 그 속에 깃든 행복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보살이다! 진광

12 학인논단 『圓覺經』「普眼菩薩章」에 나타난 수행의 핵심 1 도영

17 想 저 구름처럼 혜견

18 선지식 탐방 파란 하늘 맑은 달 – 축서사 무여 큰스님을 찾아 뵙고 – 편집부

23 풍경소리 물고기 재선

24 외부기고 왜 사는가? 한자경

28 수행의 두레박 하나 깨달음의 여정에서 만난 운문사의 선지식들 진하上

30 수행의 두레박 둘 사자의 힘줄과 코끼리의 힘으로 영원

32 운문, 운문인 여름, 운문의 빛깔 편집부

34 차례법문 항복기심降伏其心 현밀

36 자유기고 1 과학을 통해 본 제행무상 경문

40 자유기고 2 머리카락 공양 마노

42 운문만행 경주 남산 불교유적 순례기 이수

44 화랑동산 A, B, C! 환경을 지키는 작은 시작 – 제70차 동련 전국 지도자 연수회 – 현지

46 이 한 권의 책 아잔 브람 스님의 「놓아버리기(The Art of Disappearing)」를 읽고 선경

48 운문논평 에어컨을 켤 권리? 편집부

50 운문소식

51 등불 목우牧牛

평상심이 도다(平常心是道)

명성 / 운문사 회주

대부분의 수행자들에게 수행의 목적을 물으면 도道를 얻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남전보원南泉普願 선사께서는 "도道란 무엇입니까?"라는 조주 스님의 질문에 "평상심平常心이 도道다."라고 하셨고 마조도일 선사께서도 "즉심시불卽心是佛 마음이 곧 부처다."라고 하셨습니다. 도란 도대체 무엇이며 일상으로 쓰고 있는 마음(평상심)이 어떻게 도가 될 수 있을까요?

'나'라고 여기는 우리의 몸을 움직이고 사용하는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마음이 명령하지 않으면 손발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고 촉감과 생각과 느낌도 독자적으로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처럼 몸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마음이며 그 마음이 곧 '나' 입니다. 『반야심경』에서 관자재보살은 깊고 깊은 지혜에 들어서 오온(색 · 수 · 상 · 행 · 식)이 다 공空함을 비추어 보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습니다. 오온이 공空함을 깨달아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난 그 마음이 바로 도道(깨달음. 부처)입니다. 그 자리는 불생불멸하여 어떤 분별도 허락되지 않는 자리입니다.

『인왕경』에 의하면 "일념중유구십찰나一念中有九十刹那, 일찰나우유구백생멸一刹那又有九百生滅, 한 생각에 90찰나가 있고 한 찰나에 900번의 생멸이 있다."라고 합니다. 한 마음이 일어날 때 그 안에 81,000번의 변화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일상에서 찰나찰나 경계와 부딪치며 일어나는 셀 수 없는 중생심이 바로 도道라고 하지만 우리는 왜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그것은 마음자리를 보기보다는 없어질 이 오온 덩어리를 잘 입히고 먹이고 지키고 자존심에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 겹겹이 방어막을 치려하는 감정과 느낌만을 무작정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부처님 법을 만나 출가하여 도를 얻을 수 있는 길로 들어섰습니다. 수행자가 닦아야 할 유일한 일은 순간순간 일어나는 마음자리를 꿰뚫어 보아 여실한 공空을 깨닫는 것뿐입니다. 그래야만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마음을 잘 쓰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 기준은 생노병사의 고통에서 헤매는 중생을 가엾이 여기는 부처님의 연민심과 자비심입니다. 출가자를 대장부라 합니다. 5대양 6대주를 거뜬히 담고도 남을 만큼의 큰 마음을 가진 자가 대장부이지요. 일상의 작은 서운함에 매여 몇 날 며칠을 일부러 고통을 만들면서 시간을 허비하지 맙시다. 선지식으로 내 옆에 있어 준 도반들에게 고마워하고 혹시 그들이 힘들어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서 도움이 되려 애쓰고 주변에 내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일들은 없는지 살펴봅시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주변을 바라보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조금씩 보이게 되고 몸도 자연히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대중생활은 수행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는 마음으로 순간순간 일어나는 마음자리를 돌이켜 보려 애쓰고 마음껏 자비심을 수행합시다. 수행은 연습입니다. 용기와 끈기를 가지고 무한 반복하는 것입니다.

대중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히 수행 잘 하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보내고 정진 잘 합시다!

운문사승가대학 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회고와 전망[1)] 1

은광 / 운문사승가대학 교수

목 차

Ⅰ. 시작하며
Ⅱ. 운문사승가대학의 기본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Ⅲ. 수행과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Ⅳ. 마치며

요약문

이 글은 출가 수행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승가대학의 교육프로그램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고찰하고 있다. 기존의 승가교육이 너무 방대한 분량의 경전을 학인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한문으로 교육함으로 해서 파생된 문제점과 한계를 반성하고, 역사와 전통 속에 숨겨진 소중한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재발견해야 하며, 가장 불교적인 것이 모든 분야의 해법임을 명심해야 한다. 운문사승가대학은 경전을 공부하고 대중생활을 익히며 수행자로서의 기본자세와 마음가짐을 배우고 신심을 증장시키는 역할을 하는 복합수행공동체이다. 예불과 기도, 불공과 제사, 운력과 간경, 논강과 자자, 포살과 발우공양 등 몸으로 직접 체험하는 수행이 일상이다. 눈으로 글을 읽고 머리로 생각하고 이해하는 공부는 학문은 될 수 있을지언정 불교수행으로 체화되기 어렵고 자칫 불교를 지식적으로 개념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위험함이 있다. 운문사승가대학에서의 교육은 선용기심善用其心, 즉사이진卽事而眞의 사상을 기반으로 한다. 이 시대가 불교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며, 수행자에게 기대하는 것은 또 무엇인지 깊이 통찰하여 한층 더 심화된 방향으로 승가교육프로그램이 재정비 되어야겠다.

주제어

교육프로그램, 운문사, 복합수행공동체, 승가교육, 선용기심善用其心, 전통, 현대화

Ⅰ. 시작하며

'불교'와 '교육' 그리고 '프로그램' 세 가지 모두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불교란 무엇인가? 그리고 교육이란 무엇인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고, 그 시대가 요구하는 불교 교육을 위해서는 깊이 있는 사유와 검증으로 확립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받들어 법을 펼 수 있는 불제자들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행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는가를 고민해 보는 시간으로서 승가교육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살펴보고 전망해 보자.

Ⅱ. 운문사승가대학의 기본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1. 과거의 과거(깨달음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얼마 전까지 전통강원에서 공부했던 이력과정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종범 스님의 논문[2)]에

의거하면 벽송지엄으로부터 시작하여 서산문하에 확립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조선시대의 교육지표는 '선교겸수 선교회통 원융수행' 으로 교과과정은 사미니과 · 사집과 · 사교과 · 대교과로서 전등록과 염송을 공부했고 수학기간은 10년이나 11년이 통례였다.[3)]

근 · 현대에는 7년에서 5년 동안 공부했으며, 1984년에 4년으로 '전국비구니강원교직자회의' 에서 통일안을 마련한 이래 2012년까지 교육내용은 이력과정을 공부하는 것이었다.

이력과목은 선과 화엄으로 일관되어 있으며 이것은 곧 이론과 실천 수행을 함께하는 교육이었다. 무슨 까닭으로 화엄과 선이 지난 300년 동안 변함없이 수행자들의 교육프로그램으로 굳건할 수 있었던 것인가?

그것은 불교란 무엇인가? 교육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깨달음' 이라는 정확한 목표를 두고 그것에 가장 적합한 교과목들이 편성되어졌고, 그 시대의 요구에 모두 동의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러나 날카롭게 본질을 직시하고 있었던 이력과목은 지금의 젊은 출가수행자들을 교육하는데 있어 심각한 한계와 문제점에 봉착하게 된다. 깨달음에 나가는 길을 교육과정에서 찾지 못했고, 근본적인 뜻이 방향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리하여 몇 백년 내려오던 교육수행 방식을 현대식 불교교육으로 전환했어야 했고, 지금은 현대식 교육실시 10년의 세월이 흐른 시점에 서 있다.

2. 과거(친절하지 못함에 대하여) – 암호화되어 있는 교육 시스템

불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 '깨달음' 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원자로서의 神이 상정되지 않고, 주재자로서의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깨달음' 이란 부처님이 이 사바세계에 오신 진짜 이유이다. 연기법을 깨닫고, 모두가 부처였음을 깨닫고, 이 사바세계 그대로 화장장엄세계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불교의 뜻이다.

특히나 대승불교에서는 일체 중생을 제도하여 삼계육도 윤회에서 벗어나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하겠다는 대서원을 하고 있으며, 깨달음의 세계로 나가는 방법으로는 정확히 육바라밀의 수행법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심오한 세계로 어떤 구도자가 출가를 하여 행자가 되면서부터 교육은 시작이 된다.

---

1) 『불교학연구』 제60호((불교학연구회, 2019. 9))에 실린 논문입니다.

2) 종범, 「강원교육에 끼친 보조사상」,『보조사상』 3, (보조사상연구원, 1989), p.76 참고.

3) 〈표1〉 강원의 전통적인 교과 과정 및 학습 기간

10년 과정			11년 과정		
과정	기간	과 목	과정	기간	과 목
사미과	1년	조석 송주, 초발심자경문, 반야심경	사미과	3년	조석 송주, 초발심자경문, 반야심경, 사미율의, 선림보훈
사집과	2년	선원제전집도서, 대혜서장,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고봉선요	사집과	2년	선원제전집도서, 대혜서장,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고봉선요
사교과	4년	수능엄경, 대승기신론, 금강반야경, 원각경	사교과	2년 6개월	수능엄경, 대승기신론, 금강반야경, 원각경
대교과	3년	화엄경, 선문염송, 경덕전등록	대교과	3년 6개월	화엄경, 선문염송, 경덕전등록, 십지론, 선가귀감, 묘법연화경

너무도 낯설고 어색한 승가공동체에 처음으로 들어온 수행자를 불교는 어떤 방식으로 지도하고 있으며, 그의 수행을 점검하고 있었던 것일까?

대부분 옛날 스님들은 긴 행자시절을 대중에서 보냈다. 갓 출가한 이들에게 바로 경전을 가르쳐 주는 일은 결코 없었고, 행자는 엄청난 사중 일을 이것저것 다 해야 했으며, 뜻도 모르는 염불을 외우고 초발심자경문을 외우고, 업장을 소멸하는 방법 중 최고는 절을 하는 것이라 하여 108배, 1080배, 3000배 등 참회의 기도를 하게 했다.

행자시절은 습의와 위의를 익히는 시간이면서 감성의 정화, 분별심의 정화 기간이다. 즉 한 인간이 다시 태어나는 시간인 것이다. 아기는 태어나면 새로운 것만 익히면 되는데 행자는 새로운 것을 익히기 이전에 기존의 습관과 굳어진 사고방식(아상)을 버리는 작업을 해야 한다. 새로운 물을 담기 위해서는 이미 담겨 있는 물을 버려야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절대적 필요에 의해 시스템화한 장치가 바로 대중생활이다.

그 후 서로 다른 조건과 성격을 가진 초심자들이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승가대학(강원)에 입학을 하게 되고, 4년 동안의 승가 공동체 수행은 규칙적으로 정해진 명확한 시간에 맞춰 새벽 3(혹은 4시)시부터 저녁 9시까지 진행된다.[4]

특히나 운문사[5]의 경우 너무도 많은 밭일과 도량정비, 각자 파트타임으로 돌아가는 개인소임과 주어진 공부까지 굉장히 빡빡한 일정으로 하루 일과가 구성되어 있었다.(오죽하면 운문승가대학이 아니라 운문농과대학이라고 했을까?)

과거 승가대학(강원)의 학인들을 위한 교과목은 온통 한문으로만 되어 있는 엄청난 내용의 조사어록과 대승경전이 중심이었으며 불교사와 불교개론을 공부했다.[6]

그 시절 학인들은 열심히 글을 소리 내어 읽고, 그날 배운 치문을 외우고 경전을 외워 강사스님 앞에서 점검 받아야 한다. 몇 번이고 잘 외울 수 있을 때까지 다시 반복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였으므로, 늘상 쪽지에 외워야 할 내용을 적어 수시로 들여다보며 일상생활 속에서 외우고 있어야 했다. 왜냐하면 앉아서 공부할 만큼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당식 공부라며 구시대적 답습이라 생각했던 그 방법으로 우리는 불교를 만났다.

바로 여기에 큰 문제점과 동시에 숨겨진 암호가 동시에 존재하게 된다.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한 체 외웠던 염불과 치문은 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

4) 〈표2〉 운문사 수행일과표.

수 행 일 과 표			
1. 기침	4시	9. 점심공양	11시 30분
2. 예불	4시 30분	10. 오후수업	12시 30분
3. 아침공양	6시	11. 간경	2시
4. 청소	6시 30분	12. 운력	4시
5. 아침조회(어른스님, 학인대표)	6시 30분	13. 저녁공양	5시 30분
6. 상강례	7시 20분	14. 저녁예불	6시 15분
7. 수업	7시 30분	15.저녁논강	7시
8. 헌공	10시 40분	16. 취침	9시

5) 운문사 학훈學訓 : 입지발원立志發願, 정진불퇴精進不退, 유통교해流通敎海

게 되는 것인가? 외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는다. 그냥 무조건 외워야 하는 것이다.

치문부터 화엄까지 방대한 경전을 배웠으나 무슨 내용인지 잘 알 수 없었고, 피교육자 즉 학인의 수준과 상황을 배려한 교육이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

밭에서 일을 하고 큰방에서 경전을 독송하고, 마당을 쓸고 공양을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노동이 되지 않고 온전히 수행이 되기 위해선 스스로의 알아차림이 필요했다. 조석 예불시간과 기도시간속의 묵언수행은 자기 자신과의 온전히 만나는 지극히 중요한 순간이다. 그 순간의 성성적적惺惺寂寂 깨어 있음도 본인 스스로의 몫이며, 대중생활 속에서의 화합과 상생을 배우는 것도 스스로 알아내고 체험하고 발견해야 한다. 마치 모든 것이 암호화되어 있어 온갖 시행착오를 거쳐야지만 겨우 하나의 코드가 풀리며 조금씩 성숙해 가는 방식이라고나 할까.

그리하여 똑같이 주어진 시간과 공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다양한 방식으로 배움이 체득되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수행환경은 수행자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운문사승가대학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과 문화를 보유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수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심성을 순화하고 정화하는데 최고의 환경인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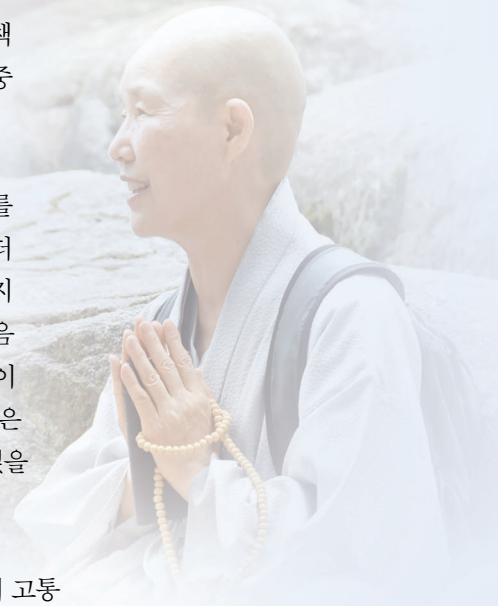
승가대학(강원)에서 중요시되었던 가르침은 선용기심善用其心. 즉사이진卽事而眞, 수처작주隨處作主와 같은 사상이다. 공부를 하는 이유는 그 마음을 잘 쓰기 위함이며, 매사에 진실하기 위함이며, 또한 항상 주인의식으로 살아가기 위함이었던 것이다.

6) 〈표3〉 2011년까지 운문사승가대학 교과 과정

학 년	과 목
사미니과 (1학년)	계율, 치문, 불교학개론
사집과 (2학년)	구사론, 서장, 선가귀감, 도서, 선요, 중국불교사, 대총상, 일본어
사교과 (3학년)	대승기신론, 금강경, 능엄경, 원각경, 한국불교사, 유식
대교과 (4학년)	화엄경, 화엄경현담, 화엄학개론
공통	염불, 요가, 서예, 사군자, 다도, 꽃꽂이, 컴퓨터 등
기타 권장과목	일본어, 영어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보살이다!

진광 / 운문사승가대학 학장



어버이날 아침, 섬들을 떠돌며 수행자처럼 살아가는 강제윤 시인의 책 '어머니전' 을 읽다가 문득 오래전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들어 『부모은중경』을 가만히 독송하였다.

『불설대부모은중경』에는 부모님의 은덕을 생각하면 자식은 아버지를 왼쪽 어깨에 어머니를 오른쪽 어깨에 메고서 수미산須彌山을 백천 번 돌더라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다고 했다. 세속을 벗어나 불문에 들어온 지 40년이 넘었고 부모님께서 이승을 뜨신 지 오래지만 해마다 어버이날 즈음이 되면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한다. 어느 어버이인들 자식들에게 선지식이 아닌 분이 계실까. 수행자의 몸으로 살아가더라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은혜가 바로 어버이 은혜다. 어찌 나에게 목숨을 나누어 준 분들의 은혜를 잊을 수 있겠는가.

불교에서는 음력 7월 15일 백중날이면 지옥이나 아귀餓鬼의 세계에서 고통받고 있는 영혼을 구제하기 위해 3보에 공양하는 의식을 한다. 즉 돌아가신 어버이 은혜를 기리는 우란분재를 지낸다. 우란분절이라고도 한다. 목련目蓮 존자께서 돌아가신 어머니의 영혼을 구제하기 위해 이날에 스님들께 오미백과五味百果를 공양했다는 고사에 따라 우란분회盂蘭盆會를 열어 공양을 하는 풍속이 운란분재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목련경目連經』과 『우란분경』에는 부처님께서 지금 살아 계신 부모나 7대의 죽은 부모를 위하여 자자自恣를 끝내고 청정해진 스님들에게 밥 등의 음식과 5가지 과일, 향촉과 의복으로 공양하라고 설하셨다. 신통으로 자신의 어머니가 아귀 지옥에서 고통 받는 모습을 본 목련 존자가 부처님께 어머니의 구원을 청원한데서 유래한 것이다. 목련目連이 신통력으로 돌아가신 어머니를 찾아보니, 아귀가 되어 굶주리는 고통을 겪고 있었다. 목련이 자신의 신통력으로 어머니를 구제하려 했으나 어머니의

죄가 너무 무거워 구제할 수 없었다. 그래서 목련이 부처님에게 간청하니, 부처님이 여름 안거가 끝나는 음력 7월 15일에 여러 스님들에게 갖가지 음식과 과일을 정성스럽게 공양하면 어머니는 아귀의 고통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했다. 목련은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해서 어머니를 구제했다고 한다.

시인의 '어머니전' 에 나오는 어머니들은 하나같이 신산한 삶을 살면서도 자식을 위해서라면 제 한 몸 기꺼이 내놓는 보살들이시다. 어머니들은 또 어느 선지식 못지않게 지혜도 깊다. 가만히 귀 기울이고 들어 보면 그 말씀들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 스며든다. 세속뿐이랴. 산중에 사는 우리에게도 생의 지침이 되는 가르침들이고 진리이다.

"첫 숟갈에 배부를까…그물코도 삼천 코면 걸릴 날 있다고 차분히 맘먹고 사시오."
"풍족하면 풍족한 대로 욕심이 생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져유. 죽으란 법은 없시유."
"사람은 재산은 없을망정 신용은 있어야 해. 손님한테 한 번 실수하면 손님 떨어져."

어머니들의 말씀이 그대로 설법이 아닌가? 시인이 전하는 어머니들의 '한 수' 가르침은 거창하진 않다.

고통과 설움의 세월을 이겨 낸 어머니들의 비장의 무기란, 우리가 늘 한쪽 귀로 흘리던 그 평범한 충고들이었다. 어머니들은 학교를 다니지 않아 난 아무것도 모른다 하지만, 삶이란 나눌수록 풍요로워지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 말 속은 스스로 경험한 뒤에야 알 수 있는 살아 있는 삶의 진리다.

시인의 책에서는 위인전 속에 나오는 위인이나 성인들은 너무도 멀리 있다. 그들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아주 가까이 계신 위인들도 있다. 늘 우리 곁에 있으나 우리가 알아채지 못했던 위인.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자식들의 위인이고 성인이라고 말한다.

내게 어머니는 나의 위인이고 보살이다. 자식들을 위해 한 몸 다 바친 위인, 자식들을 위해 끝없이 베풀기만 하는 보살, 고달프고 애달프지만 아름다운 어머니들의 생애! 때로는 자식을 위해 목숨까지 기꺼이 내놓으시는 어머니라는 존재는 한없이 따뜻하면서도 참혹하게 아름답다.

출가한 수행자에게 부모는 어떤 의미일까. 모든 인연을 끊고 나왔으니 돌아보지 않아야 되는가. '인정이 농후하면 도 닦는 마음이 성글다' 는 선사들의 가르침도 있다. 처음 치문에 동산 양개화상 사친서를 볼 때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돌아보면 나의 어머니는 손톱 깎으시는 것을 거의 보지 못했다. 손톱이 자랄 틈이 없이 일하셨기 때문이다. 자식을 가르치기 위해 한평생 고단한 삶을 사시다가 일찍 돌아가셨다. 어머니는 내가 늘 게을러질 때마다 나를 일으켜 세우고 깨우쳐 주신 선지식이요, 보살이었다.

어디 나의 어머니뿐이겠는가.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은 자식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오직 자식 잘되기만을 바란다. 보살이 일체 중생을 성취시키려는 자비한 마음과 다를 바 없다.

나무 대자대비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圓覺經』 「普眼菩薩章」에 나타난 수행의 핵심 1

도영 / 사교과

목 차

1. 시작하는 말
2. 원각경은 어떤 경전인가?
   1) 원각경의 유통 및 주석서
   2) 원각경의 명칭
   3) 원각경의 구성과 내용
3. 「보안보살장」에서 제시하는 수행이란?
   1) 「보안장」이 수행자에게 주는 의미
   2) 「보안장」에서 제시하는 수행법의 핵심
      (1) 사마타奢摩他 수행으로 삼학三學을 닦아라.
      (2) 몸과 마음이 환幻임을 관하라.
      (3) 일체가 청정하여 공空함을 관하라.
4. 수행으로 원각圓覺이 성취되면
5. 맺는말

1. 시작하는 말

세속의 삶에서 '내 마음'이 괴로울 때마다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면 좋겠다.'라고 원했었다. 모든 생명은 태어나면 늙고 죽는다. 죽으면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니 영원하지 않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은 무엇일까? 깨달음을 향해 걸어가며 마음을 닦는 수행자의 삶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꼈던 그 어떤 것보다 멋지고 가치 있는 길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영원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어렸을 때부터 출가하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했다. 동시에 '보살도를 행하는 거룩한 스님의 길을 잘 갈 수 있을까?'라고 '나'에게 의문을 던지며 주저하기를 거듭했다.

그러던 중에 부처님의 자비하신 가피를 입어 조금 늦었지만, 마음속에 그리던 출가를 했다. 처음에 주저하고 염려했던 것과 달리, 날이 갈수록 마음이 편안해지며 이 공부가 재미있고 하면 할수록 '참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 요즘은 진실로 감사하고 행복한 날이 많다.

전에 출가를 미루었던 일을 후회한 적도 있지만, 오랫동안 기다리고 열망이 컸던 만큼, '나'에게 자량資糧이 되었다는 생각을 해본다. 그 고통스러웠던 시간이 있었기에, 마음 닦는 공부를 하면서 어렵고 힘든 고비를 넘어서는 힘이 되었고,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밑거름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은 '나'에게 환희와 감동이었다. 그저 경전을 열심히 배우면 깨달음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다. 출가 후 3년의 세월이 흘렀고 꿈에 그리던 경전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경전 공부는 알아듣고 이해하기 쉬운 일이 아니었다. 부처님께서는 성불하신 후, 중생들이 알아듣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법을 설하기를 망설였다고 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편을 들어 각각의 근기에 맞게 설해주셨다. 이러한 경전에 조사 스님들은 자세한 해석을 해주셨다. 경의 말씀은 모두가 결론은 하나다. 중생이 본래 가지고 있는 불성을 되찾아 깨달음을 이루라는 것이다. 깨달음으로 가는 목적은 하나지만 이렇게 하여 길은 여러 개로 만들어졌으니, 이에 본 학인은 알 것도 같으면서 방대하고 어렵게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많이 부족함을 우선 인정하고

승가의 가르침을 그저 믿고 따르며 배우고자 노력할 뿐이다.

이에 현재 배우고 있는 『원각경』을 함허 스님과 감산 스님의 주해註解를 바탕으로 이 경의 유통 및 주석서, 명칭, 구성과 내용을 알아보고, 「보안보살장」을 통하여 수행의 의미와 그 결과인 원각圓覺 성취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원각경은 어떤 경전인가?

1) 원각경의 유통 및 주석서

『원각경』에 대한 기록은 중국 당나라 730년 지승智昇의 한역경전목록인 『개원석교록開元釋敎錄』에 북인도 계빈국 승려 불타다라佛陀多羅가 번역했다는 말이 나온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인지는 의문시되고 있다. 규봉종밀圭峰宗密 (780~841)[1]의 『대방광원각경약소大方廣圓覺經略疏』에는 불타다라가 중종 장수 2년(693)에 이 경을 번역했다고 연대를 밝혀 놓았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어 단정하기 어렵다. 이같이 역사적 기록이 정확하지 않고, 범본梵本이 전해지지 않아서, 중국에서 만들어진 위경僞經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2]

이 경의 주석서로는 중국 당唐나라 규봉 종밀 선사의 『원각경대소圓覺經大疏』 3권, 『원각경과문圓覺經科文』 2권, 『원각경대소석의초圓覺經大疏釋義抄』 13권 등[3] 9종으로 가장 많이 있고, 이후로 송宋, 명明, 청淸 시대를 거치면서 많은 주석서가 나왔으며, 명明나라 감산덕청憨山德淸 선사의 『원각경직해圓覺經直解』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함허득통涵虛得通 (1376~1433) 선사의 『원각경소圓覺經疏』 3권이 있고, 세조 때 한글로 번역한 『원각경언해본圓覺經諺解本』 등이 있으며, 중국, 한국, 일본에서 중요하게 유통 연구되었다.[4]

『원각경』을 풀이한 해설서로 규봉종밀 선사의 『원각경소초』가 유명하지만, 내용이 자세하고 방대하여 초학자들이 핵심을 잡기가 힘들다고 한다. 감산 스님의 『원각경직해』는 용성龍城(1864~1940) 스님의 『원각경』에 일찍이 그 내용이 많이 소개되었다.[5]

함허 스님의 『원각경소』는 탄허呑虛(1913~1983) 스님께서 번역하여 널리 읽혀 왔는데, "함허해는 핵심요약이 잘 되어 문장이 간략하며 뜻이 두루 하고 풍부하여, 배우는 자들이 순리에 맞게 따라가며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게 했다."라고 말씀하신다.

함허 스님은 이 경에 대하여, "사事가 두루하고 이理가 뚜렷하여 자세하게 모두 갖춘 것은 『화엄경』 외에는 이 『원각경』뿐이다. 다만 글이 풍부하고 뜻이 넓은 것은 화엄이 최고이지만, 핵심이 되는 요의了義[6]만을 취하여 당체當體를 지적해 불법의 진리에 들어맞게 요점만을 명료하게 설한 것은 『원각경』에 짝할 것이 없다. 그리고 각각의 장마다 끝에 게송으로 설하여 수지 독송하기가 쉽게 된 것이

1) 규봉종밀圭峰宗密(780~841) : 중국 당唐나라 화엄종華嚴宗의 제5조. 선종禪宗으로는 하택종荷澤宗 스님, 저서로는 그의 선교일치禪敎一致 사상을 담은 『선원제전집도서禪源諸詮集都序』가 있고, 원각경을 읽고 크게 깨친 바가 있어 다수의 주석서를 남겼다. (2016), 『都序』, 174, 참고.

2) (2001), 『圓覺經 涵虛解』, 2~3, 참고.

3) (1988), 『佛光大辭典』, 券4, 3158, 참고.

4) (2001), 『圓覺經 涵虛解』, 3, 참고.

5) 황정원 역주(2015), 『圓覺經 二家解』, 5~6, 참고.

6) 요의了義 : 법法의 사의四依 중 하나. ① 법에 의지하고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음. ② 요의경에 의지하고 불요의경에 의지하지 않음. ③ 뜻[義]에 의지하고 말[語]에 의지하지 않음. ④ 지혜에 의지하고 식[識]에 의지하지 않음.

다."라고 해설하신다.[7)]

이 경은 예로부터 선禪과 교敎를 아울러서 학습하여왔고, 전통 강원에서 『금강경』, 『능엄경』, 『기신론』과 함께 사교과四敎科의 필수과목으로 배우고 있다. 이것은 그 내용과 사상이 높이 평가되고 존중되어 오늘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원각경의 명칭

『원각경圓覺經』의 정확한 명칭은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이고, 줄여서 『대방광원각경大方廣圓覺經』, 『원각수다라요의경圓覺修多羅了義經』, 『원각요의경圓覺了義經』, 『원각경圓覺經』이라 칭한다.[8)]

이 경의 명칭에서 '대방광大方廣' 이란?

大는 체體에 해당하며 만유의 본체이다. 광대廣大하고 무궁무진無窮無盡하여 시방세계에 두루 미치는 까닭이다.

方은 상相으로 차별 현상이다. 방정方正은 바르고 반듯한 것으로 삿됨에 치우쳐 떨어지지 않고 온갖 덕을 갖춤이다.

廣은 용用에 해당한다. 작용은 첫째 자리행自利行, 둘째 이타행利他行, 셋째 자리리타행自利利他行[9)], 이 세 가지를 자타自他가 평등平等하고 원융무제圓融無際하게 넓혀 가는 것이다. 즉 광대하여 활용活用하지 않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원각圓覺은, 이러한 大 · 方 · 廣 만덕萬德을 갖춘 까닭으로 정각正覺이다. 즉 원각圓覺이란 바른 깨달음을 말하며, 여러 경전과 조사 스님의 글에서 표현하는 일물一物, 일심一心, 진여眞如, 불성佛性, 본성本性, 본각本覺, 주인공, 여래장如來藏이라고 할 수 있다.

수다라修多羅[10)]는 일반적으로 경전을 통칭한다.

요의了義는 깨달음의 이치를 명료하게 밝혀 완전하게 설명한 경전이라는 말이다. 여기서 『대보적경』에 근거해서 요의와 불요의에 대하여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1)]

요의 了義	불요의 不了義
제일의제第一義諦를 설함	세속제世俗諦를 설함
구경究竟의 뜻을 명백하게 다 완전히 드러냄	불법의 이치를 완전하고 명백하게 드러내지 않음 중생의 근기에 따른 방편의 가르침
번뇌와 업이 다하는 이치에 대해 널리 설함	업을 짓고 번뇌와 혹惑에 물드는 것에 대해 널리 설함
닦고 다스리면서 깨끗이 하는 방식으로 설함	번뇌의 더러움에 물든 법을 비판하는 방식으로 설함
생사와 열반의 두 가지가 차별이 없음을 설함	생사를 저버리고 열반을 좋아하는 것에 대해 설함

아뇩다라삼먁삼보리阿耨多羅三藐三菩提는 무상정변정각無上正徧正覺으로 우리말로 하면 "위 없는 바르고 두루한 깨달음"이다. 이것이 곧 대방광원각大方廣圓覺이다. 그러므로 이 경은 원각圓覺을 완전하게 설명하여, 누구나 대승 궁극의 깨달음의 경지인 성불成佛의 길로 이끌어 주는 경이라는 뜻이다.[12)]

---

7) https://www.youtube.com/watch?v=suHGoR2wuHI [2021.6.17], 참고.

8) (2001), 『圓覺經 涵虛解』, 2, 참고.

9) 자리리타행自利利他行 : ① 자리행 : 자기를 위한 수행을 주로 하는 것, 소승인 성문 · 연각의 행. ② 이타행 : 다른 이의 이익을 목적하여 행동하는 것. ③ 자리리타행 : 대승보살이 닦는 행, 자리행과 이타행을 완전하고 원만하게 수행한 이를 불타라 함.

10) 수다라修多羅 : sūtra의 음역音譯, 경經 · 경전經典 · 계경契經이라고 한다. 경經의 원뜻은 직물의 날실(경사經絲)이다. 날실은 근본根本이고, 여기에 씨실(위사緯絲)을 짜 넣어 직물이 만들어지므로, 근본 의義를 가르치는 책을 일컬어 경經이라 한다.

11) 李智冠(2015), 『伽山佛敎大辭林』, 券11, 325, 참고.

12) 황정원 역주(2015), 『圓覺經 二家解』, 9~12, 357~370, 참고.

3) 원각경의 구성과 내용

이 경은 문수 · 보현 · 보안 · 금강장 · 미륵 · 청정혜 · 위덕자재 · 변음 · 정제업장 · 보각 · 원각 · 현선수보살, 이상의 12 보살이 석가모니 부처님께 차례로 문답한 것을 각각 1장으로 하여 12장十二章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전의 일반적인 구성형식인 3분법分法으로 나누어 보면, 서분序分은 아난阿難의 여시아문如是我聞부터 동주여래평등법회同住如來平等法會까지이다. 일시一時에 바가바婆伽婆[13]께서 신통대광명장삼매神通大光明藏三昧[14]에 들어서 대보살마하살 십만 인과 함께한 법회의 정황을 보여주고 있다. 정종분正宗分은 문수보살장부터 원각보살장까지로, 각각의 보살들이 원각圓覺의 수행에 관하여 묻고, 부처님께서 답하신다. 유통분流通分은 현선수보살장으로 이 경을 듣게 된 것을 기뻐하며, 경의 이름과 법의 유통流通을 묻고 답한다.[15]

<table>
<tr><th>삼분법
三分法</th><th colspan="4">내 용</th><th>특 징</th></tr>
<tr><td rowspan="8">1. 서분
序分</td><td colspan="4">如是我聞 ~ 同住如來平等法會</td><td rowspan="8">첫머리에 경 전체의 취지를 말하는 총서總序로 육성취에 의해 서술</td></tr>
<tr><td rowspan="7">육성취
六成就</td><td>신信</td><td>如是</td></tr>
<tr><td>문聞</td><td>我聞</td></tr>
<tr><td>시時</td><td>一時</td></tr>
<tr><td>주主</td><td>婆伽婆</td></tr>
<tr><td>처處</td><td>神通大光明藏</td></tr>
<tr><td>중衆</td><td>대보살마하살
십만 인</td></tr>
<tr><td>2. 정종분
正宗分</td><td colspan="4">「문수보살장」~「원각보살장」</td><td>부처님 설법의 본론本論에 해당</td></tr>
<tr><td>3. 유통분
流通分</td><td colspan="4">「현선수보살장」</td><td>경의 공덕을 설법하고 널리 유포시킬 것을 권하는 결론 부분</td></tr>
</table>

처음의 문수장은 신해문信解門이다. 불도佛道 수행은 교법敎法을 믿고 완전하게 이해해야만, 다음으로 수행하고 증득할 수 있는 것이다. 문수文殊는 지혜를 대표하는 보살이다. 모든 행行은 지혜智慧에 의지할 때 선경계善境界로 나아갈 수 있다. 지혜가 아니면 유루有漏를 이루고 삿된 마구니의 종자種子가 된다. 진실로 지혜는 만행萬行의 선봉이자 필경畢竟에 묘법妙法이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원각圓覺을 닦는 자가 지혜를 의지하여 수행을 시작하도록, 문수보살이 처음으로 질문하게 하였다. 여래의 최초 수행방법인 인지법행因地法行은 원각圓覺에 의하여 번뇌와 무명無明을 끊고 깨달음을 이루었다고 말씀하신다.[16]

다음으로 보현장은 행문行門이다. 보현普賢이란 대비大悲를 널리 베풀어 근기마다 모두 이롭게 하며, 만행萬行을 수행하여 모든 덕을 다 성취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보현보살은 부처님께 원각의 청정한 경계를 듣고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13) 바가바婆伽婆 : 부처님의 다른 명칭, 6가지 의미가 함축됨. ① 자재自在 ② 치성熾盛 ③ 단엄端嚴 ④ 명칭名稱 ⑤ 길상吉祥 ⑥ 존귀尊貴. 만일 한 단어로 번역하면 나머지 의미를 거두지 못하므로 범어 그대로 두었다. 한역에서 5가지 번역하지 않는 오종불번五種不翻 단어 중 하나.

14) 신통대광명장삼매神通大光明藏三昧 : 삼매 중 하나, 수많은 신통광명이 일어나는 창고와 같아 붙여진 명칭. 삼매란, 범어 samadhi의 음역. 등지等持 · 정定 · 정정正定 · 정수定受 등으로 의역한다. 마음을 한곳에 모아 움직이지 않는 것을 정定, 관觀하는 법을 바로 받으므로 수受라 한다.

15) 황정원 역주(2015), 『圓覺經 二家解』, 14~22, 366~368, 참고.

16) 황정원 역주(2015), 『圓覺經 二家解』, 23~24, 참고.

知幻卽離. 不作方便 離幻卽覺 亦無漸次.

"환상인 줄 알면 곧 미혹에서 떠난 것이다. 방편을 지을 것이 없으며 환상을 떠나면 곧 깨달음이니 또한 점차 수행도 없으리라."

이에 "지환즉리 부작방편 이환즉각 역무점차"라고 수행修行의 이치를 돈교대승頓敎大乘[17]으로 답하신다.[18]

3. 「보안장」에서 제시하는 수행이란?

1) 「보안장」이 수행자에게 주는 의미

문수장과 보현장은 상상근기上上根機가 아니면 수행을 일으키는 방편을 알 수 없다. 말세중생은 중하근기中下根機가 많아 바른 방편方便이 없으면 제대로 입문하지도 못하고 점차漸次가 없으면 돈오頓悟하기도 어렵다. 이에 보안보살이 바른 수행의 방편方便과 점차漸次를 가르쳐 주시도록 부처님께 거듭 간청한다. 보안普眼이란 태양이 어두운 곳을 두루 비추는 것과 같이, 자비慈悲와 지혜智慧가 온통 두루하다는 뜻이다.[19]

"초발심시변정각初發心時便正覺 부처를 이루고자 처음 발심할 때의 그 마음이 곧바로 깨달음이다." 처음 시작하는 마음이 굳건해야 마침내 일을 성취할 수 있으며, 첫걸음의 방향이 바르게 되어야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 천리千里를 가는 행行은 한 걸음에서 시작하고, 보살의 만행은 관문觀門에서 시작된다. 한 걸음이 잘못되면 내딛는 걸음 모두가 목적한 곳에 갈 수 없다. 정관正觀이 없으면, 수행이 정도正道를 따르지 않아, 구하는 도과道果를 증득할 수 없다. 바른 방편方便과 바른 사유思惟로 수행을 해 나가면, 어찌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어떻게 환幻에서 벗어나지 못하겠는가?[20]

우리는 무명無明의 환幻과 같은 망념 속에서 '내'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고 있다. 보안장 속 부처님은 원각심圓覺心을 찾아가는 길을 분명하게 알려 주신다.

정념正念으로 찰나의 순간마다 자기의 마음을 관찰하여 바르게 알아차리고 모든 환幻을 멀리 여의며, 깨어 있으라고 설하신다. 즉 산란한 현실 속에서 바깥 경계와 마주한 내 마음속 탐貪·진瞋·치癡가 만들어내는 대상에 끌려가지 않도록 경계하신 것이다. 즉 고요하게 마음을 챙겨서 선정禪定의 상태를 이루어 지혜智慧를 바탕으로 모든 일을 하라고 하신다.

즉 마음을 닦아 불도佛道를 이루고자 하는 수행자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보안보살장」의 부처님 말씀을 따라, '정관正觀으로 무명無明의 환幻을 여의는 것'이다.

17) 돈교대승頓敎大乘 ① 돈교 : 일정한 단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적, 비약적으로 높은 종교적인 입장을 설하고 가르치는 것. ② 대승 : 사람을 싣고 이상경理想境에 이르게 하는 교법 가운데서, 교리·교설과 이상경에 도달하려는 수행과 그 이상·목적이 모두 크고 깊은 것이므로, 이것을 받는 근기도 또한 큰 그릇인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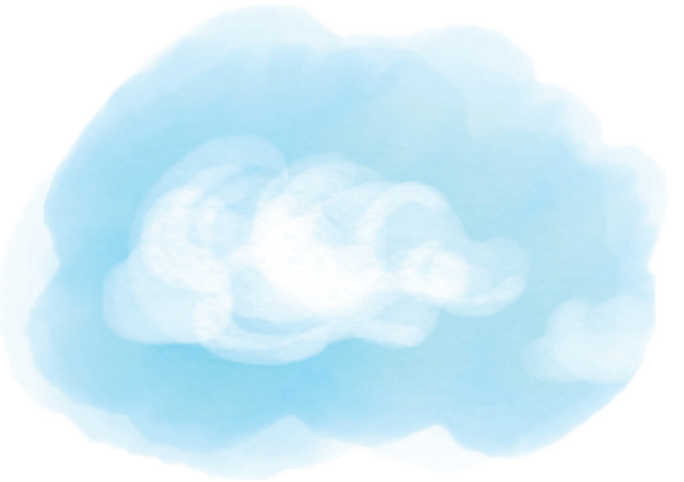
18) 황정원 역주(2015), 『圓覺經 二家解』, 51~52, 64, 참고.

19) 황정원 역주(2015), 『圓覺經 二家解』, 73, 76, 참고.

20) 황정원 역주(2015), 『圓覺經 二家解』, 75~76, 참고. (2001), 『圓覺經 涵虛解』, 96, 참고.

저 구름처럼

혜견 / 사미니과



이 몸과 마음 또한
저 구름처럼 단지
조건따라 生하고
조건따라 滅할 뿐이거늘 慧見

파란 하늘 맑은 달

– 축서사 무여 큰스님을 찾아 뵙고

편집부

이른 아침 해가 산 위로 올라오기도 전에 축서사에 도착했다. 5월에 서리라도 내린 듯 몸이 오돌오돌 떨리도록 추웠다.

"여기는 봄이 없는 것 같아요." 탑 주위를 비질하던 한 얼굴 맑은 보살님이 웃으시며 말을 건네셨다. 그리고 몸이라도 좀 녹이라며 다실로 안내해 주셨다. 일찍 온다고 서두른 것인데 와도 너무 일찍 온 모양이었다.

이날 스님을 뵙는 것은 따로 시간이 정해진 것은 아니었다. 시자실에 문의를 드렸을 때 그냥 오면 된다 하셔서 말 그대로 그냥 간 것이다. '그냥' 이 주는 불확실성에 걱정이 일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이 컸다. 이렇게 일정한 시간을 열어 오는 차례로 누구나 만나주시는 것 그 자체가 하나의 귀한 법문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스님이 계시는 처소에 이르러 더욱 분명해졌다.

'아, 스님이 계시는구나.'

댓돌 위에는 겨울 털신 한 켤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제야 나도 모르게 안심이 되었다. 스님은 찾아오는 공부인들을 위해 시공간을 열어둔 채 그렇게 자리를 여의지 않고 계셨던 것이다. 가지런

한 털신이 말없이 전해 주는 스님의 존재감. 그 자체가 법문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시자실에는 이미 한 거사님이 기다리고 계셨다. 반백의 머리를 공손히 숙이며 우리에게 합장을 하셨다. 맑게 빛나는 겸손한 얼굴은 이분이 공부를 물으러 온 분임을 한 눈에 알게 했다. 스님을 뵙고 싶다는 마음만 앞섰을 뿐 정작 참선의 '참' 자도 모르고 찾아간 처지가 몹시 부끄러웠다.

"공부를 물으러 와야 하는데 이런 일로 찾아뵈어 송구스럽습니다." 오게 된 사정을 말씀드리며 죄송스러운 마음에 덧붙였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을 녹음을 좀 해야 하고… 또 사진도 찍어야 하는데……." 허락을 구하는 것이 너무 겸연쩍어 말끝이 흐려졌다.

"여러분이 밖에 있을 때 기자출신은 아니었나보다. 허허허"

스님께서 왜 웃으시는지 몰라 엉거주춤하다 이내 어설픈 질문들을 여쭙기 시작했다.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 생각해도 참 맥락도 없는 부실한 질문들이었다. 하지만 스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알고 싶어 하는지 바로 바로 아시고는 갈팡질팡하는 우리들의 질문마다 우리에게 맞는 현답을 이끌어 내주셨다. 이 글은 그런 스님의 현답을 기록한 글이다.

하지만 사실 더 나누고 싶었던 것은 그 현답들 속에서 잔잔히 빛나던 스님의 따뜻한 자비와 지혜의 빛이었다. 다만 그것은 언어를 떠난 어떤 것이어서 짧은 글재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아쉬울 뿐이다.

그날 스님이 주시고자했던 그 빛에 누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우리의 우문들은 좀 다듬고, 스님의 말씀은 되도록 원음으로 해서 글로 엮어 본다.

◆ **수행자로 살아갈 때 각자의 근기나 조건을 떠나 항상 가져야 할 어떤 원칙 같은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원칙이라면 우리 부처님의 법도, 특히 계행을 바탕으로 해서 여법하게 살아가되 목표는 견성성불이어야 되요. 알겠지? 지금은 뭐 견성성불하면 너무 거창하게 대단하게 느낄지 몰라도 불자라면 누구나 목표는 거기로 해서 꾸준하게 일생을 노력하고 애써야 해요.

우선은 강원에서 배우는 교과목을 좀 부지런히 해요. 열심히 잘 배워서 마음가짐도 진정한 발심이 되가지고 졸업을 하면 꼭 마음공부를 하세요. 이 마음공부를 잘 하느냐는 운문사에서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노력하고 애썼느냐가 큰 바로미터가 되요. 학인시절을 잘 살고 아주 훌륭하게 마쳐야 해요. 그러면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고 밑바탕이 되고 그것이 견성으로 가는 직코스가 될 수가 있어요"

◆ 잘 배우는 게 무엇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원에서 배우는 치문 같은 옛 조사들의 글들은 저희들에게는 비현실적인 것처럼 느껴지고, 이것이 현재의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치문의 글과 같은 것은 옛날 사람들의 글이고 또 말씀도 그때 사람에게 해 주는 말씀이에요. 좀 거리감이 있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한 꺼풀 벗기고 자상하게 보면 진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꼭 같애요. 부처님의 법이 부처님 때 다르고 지금도 또 다른 게 아니예요. 다만 인제 그것을 바로 보고 느낄 수가 없고 여러분의 환경 자체가 그런 것을 알기는 너무 어린기야. 색깔이 희냐 검느냐, 색깔 밖엔 볼 줄 몰라. 그 이면은 볼 수가 없어요.

어쨌든 전부를 다 수용하기는 조금 어렵더래도 열심히 하고 잘 해봐요. 그러면 다 맞지. 허튼 말씀 없어요. 얕은 생각으로써 안목 없이 보니까 요즘 안 맞는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할지 몰라도 그거는 지금 학인들의 안목이, 생각이 고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이라요. 고거는 아주 심오한 그런 말씀들이라요.

학인시절에는 그런 책을 자꾸 가리고 따지고 문제 삼고 하지 말고 가르치는 액면 그대로 다 듣고, 그리고 웬만하면 치문 전체를 외워야 되요. 다 외우고 나면 보이는 게 있어요. 누워서도 치문 글이 쫙 필름처럼 지나갈 정도로 그렇게 공부하면 저절로 알게 되요(웃음)"

◆ 공부를 하시면서 회의가 오거나 흔들리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럴 때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나도 참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뭐 제대로 발심도 못했고 또 신심도 약했고 인간적인 면에서도 부족한 사람인데 즉 그렇더래도 나는 선을 위주로 산 사람이라 여러 가지가 어렵고 좀 괴롭더래도 늘 화두는 안 놓치려고 노력했어요. 하루 종일 가나오나 앉으나 서나 화두만 되면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해져요. 전연이라고 하면 조금 못하지만 웬만한 건 의식이 안 돼요. 괴롭더래도 별로 괴로운 줄 모르고 어디 뭐 좀 탁하고 문란하고 어렵고 그런 상황에 빠졌더래도 그 자체를 괴롭다 하는 생각을 안해요."

◆ 지금 여기 벽에 옛 어른스님들 사진이 걸려 있는데 옛 어른 스님들과 관련된 이야기 하나를 들려 주실 수 있으신지요?

"춘성 스님이라고 키도 크시고 건장하시고 강직하시고 여러모로 좀 특별하게 사셨던 분인데, 그분은 9시만 되면 꼭 누워. 결제해서 대중하고 같이 살든 해제 때 한두 명하고 같이 살든 늘 한결같애. 누워도 이부자리도 없이 좌복 하나만 배위에 딱 있고. 왜 이불이 없느냐, 이불을 이별 이離자, 부처 불佛자. 편안하게 이불 속에 들어가면 잠도 늘어지게 자고 온갖 고뇌 망상도 피우는 곳이 이불이거든. 그렇게 살면 부처님하고 이별하는 그런 공부가 된다, 그래서 좌복만 딱 얹고 한 겨울에 주무셔. 저래가지고 잠을 잘 수 있을까 싶어도 두 시간 지나면 딱 일어나 앉아서 정진을 하셔.

그렇게 정진을 좀 열심히 했던 분인데, 어느 해 여름 안거 때, 나하고 노장님하고 또 다른 수좌 한 명이 같이 살았는데, 해제철이 되니까 그 수좌는 이제 좀 쉬면서 산도 타고 신도들 안내도 하면서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 앉는 데는 제대로 앉을 수가 없는 기라. 앉으면 늘 곯아 떨어져요. 어느 날 노스님이 벌떡 일어나시더니 그 스님 멱살을 쥐고 선방 앞에 물을 담아 놓고 쓰던 큰 휘발유통에 집어넣데 (웃음). 아 저러다가 죽어 버릴까봐 겁이 덜컥 날 정도로. 그리고 노장은 막 방에 들어가더니 그 스님 걸망에 책을 다 꺼내와서 마당에서 불을 지르고 그 다음날 그 수좌를 산문출송 시키데. 저런 스님은 스님 아니다, 저렇게 공부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스님을 내보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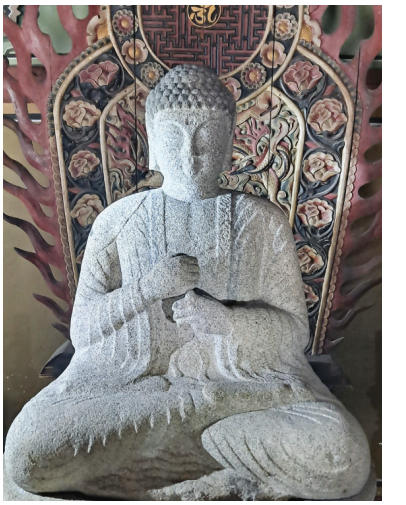
그때도 지금도 그 노장 대단하다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보통 볼 때는 뭐 저렇게까지 안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 가 있는데 사실 또 실제 그럴 수도 있지만 사람에 따라서 한창 공부해야 할 그런 사람에게는 경책을 그런 식으로……. 지금도 생각을 하면 참 좋게 생각이 들어요.

◆ **춘성 스님은 욕을 잘 하신 것으로 유명하신데요…….**

"욕을 하더래도 보통 사람이 들을 때는 분명히 욕은 욕이래도 그건 사실 법문이라. 황벽 스님 같은 분도 그 들으면 욕인데 아주 심오한 법문이고 그래. 감동을 주면서 발심시키는 요즘으로 말하면 코믹한 연기야 (웃음)"

◆ **저는 출가하기 전 당연히 스님들은 선방에 가서 공부를 하는 걸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출가해 보니 선방 가는 것 말고도 여러 갈래의 길이 있고 많은 스님들이 다양한 길을 택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선방을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선원에 가고 싶거든 어쨌든 4년간을 잘 났잖아, 스님도 강원을 잘 나신 거 같은데, 한 삼칠일 아니면 한 7주, 기도를 좀 해요, 기도를.



사진제공_ 축서사 / '보광전 석조비로자나불좌상'

기도를 한다는 것은 마음을 아주 고요하게 하고 편안하게 해서 진정하게 발심한다는 거예요. 즉 화두하고 싶은, 화두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그 자신을 좀 만들어요. 그리고는 스님 일생을 책임질 수 있는 선지식에게 정식으로 가서 화두를 타요.

화두를 타면 기본적인 그런 참고서적 같은 것을 가르쳐 줄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좀 부족할 거예요. 그러면 기초적으로 초보자에게 정리가 된 고런 책자가 혹 있어요. 그런 책을 구해서 두세 번쯤 그것도 웬만하면 다 외울 정도로 아주 짬지게 공부해요. 문장 하나하나 외우듯이 그래서 완전히 수행하는 방법을 자기가 터득해야 해요. 터득한다고 하기가 조금 뭣하지만 환히 정말 어떻게 하는 줄을 훤히 알고 실제 공부가 좀 되도록 그렇게 해서 선방에 가서 앉을 수 있는 기본 그런 지식과 체험을 조금 가진 상태에서 선원에 가면 좋지. 선원 대중과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틀을 갖춘 상태에서 출발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화두도 없이 이 기본적으로 갖추는 그런 것이 없이 조금은 막연하게 가시는 분도 있거든. 그러면 공부가 되기가 어렵지. 어쨌든 최소한 선방에서 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고 그래 선원으로 가요."

"이 정도면 이제 쓸 수 있을 만큼 됐지요?"

스님은 우리를 다독이듯 말씀하셨다.

"뭐 다른 질문해도 대동소이하지. 오십보백보이지."

시간을 보니 어느덧 훌쩍 한 시간이 지나있었다. 처음도 중간도 끝도 한결같으셔서 시간이 그렇게 지나있는지도 몰랐다. 스님은 평소 말씀을 길게 하지 않으신다고 들었는데 이날은 철없는 학인들을 위해 오랜 시간 답을 해 주고 계셨던 것이다. 그 자비심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너무 많은 시간을 차지한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 가득했다.

밖으로 나오니 언제 그렇게 서릿발 같이 추웠냐는 듯 도량과 그 둘레의 온 산천에는 마알간 하늘빛을 담은 햇살이 찬란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화두니깐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제 졸업 잘 해서 일체를 놓고 일체를 쉬어서 그야말로 단신으로 선방에 들어가요.'

마지막으로 해 주신 말씀이 햇살에 눈부시게 빛나며 가슴 가득 스며들었다.

축서사를 뒤로 하고 어느새 차는 절 밑에 동네를 빠져 나가고 있었다. 문득 창밖을 보니 황사가 심한지 시야가 먼 데까지 온통 뿌옇게 흐려 있었다. 그때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같은 하늘이었는데 어째 그렇게 달랐을까 참 신기하다. 공부인이 계시는 곳이라 그 하늘 빛조차 달랐던 걸까? 파란 하늘에 맑은 달 같았던 스님. 그리고 그 마알간 빛을 닮았던 축서사의 하늘이 지금도 눈에 생생하다.

물고기

재선 / 사미니과

큰강 에는 세 물고기가 살고있다
새끼물고기 행자님 중간물고기 학인스님 큰물고기 어른스님
그 속 하나 에
세종류 물고기
색깔도 크기도 다르고한데
그리고
물살도 거칠고 힘든데
힘차게 앞을 보며 가고 있다
때론
어떤물고기는 조약돌에 걸려 힘들어하고
어떤물고기는 상처가 많아 헤엄이 느리지만
모두들 물러나지 않고 앞으로 가고있다
세세 생생 보살도 서원한
물고기들

왜 사는가?

한자경 / 이화여대 철학과 교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 버스가 어디로 가는지, 왜 그 버스를 탔는지도 모르는 채 버스에 앉아 있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을 이상한 사람이라고 여길 것이다. 하루를 그러고 돌아다녀도 정신없는 짓일 텐데, 평생을 그러고 산다면 그 사람을 어찌 제정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 예전에 이런 생각을 하며 힘들었던 적이 있었다. 도대체 우리는 왜 사는 것일까? 삶의 목적,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 중요한 물음인데도 그 물음의 답을 알지 못하니, 사는 것 자체가 절망적으로 느껴졌었다. 결국 그 답을 찾기 위해 나는 철학을 공부하게 되었다. 저 인생의 답을 찾아 누군가는 명상을 하고, 또 누군가는 출가하여 스님이 되기도 할 것이다.

우리는 왜 저 물음을 던지고 그 답을 찾고자 애쓰는 것일까?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 일어난다. 왜? 화장실을 가고 아침을 먹기 위해서. 아침을 먹고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선다. 왜? 버스를 타려고. 왜? 학교에 가려고. 왜? 공부를 하려고. 왜? 배워서 대학에 가려고. 왜? 취업을 하려고… 이처럼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왜 그것을 하는지, 그 행위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한다. 일상의 사고는 그렇게 '목적 지향적 사고', '목적론적 사고' 이다. 그러니 삶에 대해서도 우리는 우리의 삶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왜 살아야 하는지를 묻는다. 그러나 그 답을 찾기는 쉽지 않다. 애당초 '왜 사는가?' 의 물음은 '왜 버스를 타는가?' 의 물음과 동일한 방식으로 대답될 수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버스를 타는 것' (a)의 목적은 그렇게 해서 '학교에 가는 것' (b)이다. 한 행위(a)의 목적, '왜' 의 답은 바로 그 다음의 행위(b)이다. 그리고 '학교에 가

는 것' (b)의 목적은 '공부를 하는 것' (c)이다. 그런 식으로 a는 b를 위해서, b는 c를 위해서, 그리고 c는 d를 위해서, 또 d는 e를 위해서 … 이런 방식으로 계속 이어진다. 그런데 '왜 사는가?'의 물음은 태어나서 죽기까지의 전 과정을 하나로 묶어 '삶' 이라고 부르면서, 그 삶 전체의 목적을 묻는 물음이다. 그러니 우리가 목적 내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 b부터 z까지의 일체가 모두 그 삶 안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다. 결국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어떤 목적도 다시 그 전체 삶의 목적으로 설정되기는 어렵다.

그런데도 '목적 지향적 사고' 를 고수한다면, 삶의 목적은 결국 삶 다음의 것, 삶 너머의 것에서 찾아지게 된다. 따라서 사람들은 삶 다음의 것, 죽음 너머의 사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사후를 밝히는 일에 몰두하게 된다. 결국 생사 윤회나 윤회 너머의 열반 또는 사후를 관장하는 신神을 통해 삶의 의미나 목적을 찾으려고 한다. 그런 식으로 삶의 목적을 삶 너머의 것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a의 목적으로 a 너머의 b를 말하는 것은 결국 a를 b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버스를 타는 것은 학교를 가기 위한 수단이고, 학교에 가는 것은 공부를 하기 위한 수단이고, 공부를 하는 것은 다시 대학을 가기 위한 수단이다. 전체 삶의 목적을 삶 너머의 어떤 것 x로 설정하는 것은 결국 삶 전체를 그 x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는 것이 된다.

그런데 삶이 과연 무엇을 위한 수단일 수가 있을까? 삶은 다른 무엇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절대적 목적인 것은 아닐까? 100세 즈음의 노인이 코로나로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살아서 퇴원할 때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것은 그 사람의 삶 자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그 사람이 살아서 뭔가 다른 목적 x를 이루기 때문이 아니지 않는가. 아이가 병으로 생사 위기에 있다면, 부모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를 들어 갖고 있는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아이를 살리고자 할 것이다. 그것은 부모에게 그 아이의 살아 있음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이지 그 아이가 살아서 실행할 어떤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닐 것이다. 거기에는 '왜?' 라는 물음이 들어설 자리가 없지 않을까. 젊은 사람이 사기를 당해 억울해서 또는 나이 든 사람이 사업 실패로 비참해져서 자살을 할 경우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것도 수백 수천억 원보다 더 귀한 삶 자체가 버려졌기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삶은 그 자체가 궁극의 목적이지 다른 것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이미 은연중에 직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삶 자체가 목적이라면, 그럼 '왜 사는가?' 라는 물음이 이미 대답된 것일까? 우리는 행위가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인 경우와 행위 자체가 목적인 경우를 구분할 줄 안다. 예를 들어 어떤 행위가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일 경우, 우리는 그것을 '일, 노동' 이라고 부른다. 그 경우 그 일의 댓가로 받는 돈이 목적이 될 것이다. 반면 목적이 따로 없이 그 행위 자체가 목적인 경우, 우리는 그것을 '놀이' 라고 부른다. 놀고 있는 아이들한테는 노는 행위 그 자체가 목적이다.

아이들은 무엇을 이루기 위해 노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왜 노느냐?' 라고 묻는 것은 의미가 없다. 아이들은 그냥 노는 것 자체가 즐겁기 때문에 노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그런 것일까?

다른 무엇을 위한 수단이 아닌데도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 행위를 하는 것은 그 행위가 놀이처럼 즐겁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그만큼 즐거운 것일까? 불교는 우리가 일시적으로 즐겁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곧 끝나면서 고통으로 바뀌기에 결국 '괴고壞苦' 로서 고에 속한다고 보며, 그래서 일체가 모두 고통이라는 '일체개고一切皆苦' 를 말한다. 그렇다면 그 자체 즐거운 것도 아닌 삶, 고통스런 삶, 우리는 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 도대체 왜 사는 것일까? 삶의 의미는 어디에 있고, 삶의 즐거움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

초기불교는 범부가 탐진치에 이끌려 삶에 집착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번뇌로부터 자유로운 열반을 설했지만, 대승불교는 이승이 열반에 집착하여 생사를 저버리는 것을 비판하면서 '생사즉열반' , '번뇌즉보리' , '중생즉부처' 라는 진속불이眞俗不二를 설하였다. 이는 곧 중생의 번뇌적 삶의 목적을 생사 너머의 열반, 번뇌 너머의 보리, 중생 너머의 부처에서 구하지 말라는 뜻일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의 고질적인 목적 지향적 사고에 대한 경계일 것이다. 목적 지향적 사고는 '지금 여기' 의 눈앞의 현재를 언제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위한 수단으로 뒤바꾸는 사고, 그래서 계속 현재를 놓치고 끝까지 미래의 망상 속에 머무르게 하는 사고이다. 현재를 미래의 수단으로만 여기는 것이 망상인 것은 현재를 과거의 결과로만 여기는 것이 망상인 것과 마찬가지이다. 과거의 기억에 갇혀 사는 것이 고통이라면, 미래의 계획에 갇혀 사는 것 또한 고통이다. 왜? 현재가 없기 때문이다.

미래의 꿈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그것은 결국 현재를 놓치기 때문에, 현재의 즐거움을 놓치기 때문에 고통이다. 즐거움은 현재진행형으로만 존재한다. 삶에 의미가 있고 삶에 즐거움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 삶 이후가 아닌 현재의 삶에, 그리고 그 삶 중에서도 과거나 미래가 아닌 바로 지금 여기의 현재에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어디에 삶의 즐거움이 있단 말인가? 삶이 과연 즐거운가?

우리는 사실 현재에 담겨 있는 삶의 즐거움을 잘 의식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우리가 삶의 즐거움을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다. 삶의 즐거움을 알기에 우리가 끝까지 삶에 머무르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현재적 삶의 즐거움은,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이라고 상상해보면 그때 비로소 더욱 절실하게 다가올 것이다.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두 눈을 뜨고 바라보고, 허공을 나는 새들의 지저귐을 두 귀를 열어 들을 수 있다는 것, 이 살아 있음 자체가 그냥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을까. 숨을 쉬면서 땅 위를 걷다가 이 숨과 걸음이 마지막일 수 있다고 상상하면,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를 실감하게 되지 않을까.

숨이 멎고 삶이 끝나는 죽음이 가장 큰 고통이라면,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죽지 않고 살아 있음이 가장 큰 즐거움이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런데도 우리는 이 현재적 삶의 즐거움을 잘 의식하지 못한다. 즐거움을 즐거움으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다. 왜? 우리가 계속 살아 있기만 할 뿐 죽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삶의 즐거움이 끝나본 적이 없기에, 언제나 내게 머물러 있기에, 삶의 즐거움이 없지 않고 있다는 것을 분별적 의식으로는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장 귀한 보물은 내게 가장 가까이에 있고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다. 그래서 그것이 보물인 줄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우리는 즐거움을 구해 다른 것들을 찾아 돌아다닌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한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그 보물보다는 못하기 때문이다. 삶에 덧붙여지는 어떠한 장식도 삶 자체가 주는 즐거움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왜 사는가? 왜 사냐고 물으면, 웃지요! 비 내린 날 오후 나뭇잎 끝에 반짝이는 물방울의 아름다움처럼, 문득 돌아본 서쪽 하늘 석양의 불타는 노을처럼, 삶은 그냥 그렇게 아름답기에 귀하고, 귀하기에 즐거운 것이 아닐까. 사는 것에 '왜'가 어디 있겠는가? '왜'라는 물음의 답을 찾기 어려운 것은 삶의 귀함은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의미, 인간이 부여하는 모든 목적을 넘어서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삶의 즐거움을 누리면서도 그것을 즐거움으로 여실하게 알지 못하는 까닭은 삶의 즐거움은 우리가 그 삶 위에서 노력하여 얻어내는 그 어떤 상대적 즐거움과도 비교될 수 없는 절대적 즐거움이기 때문일 것이다. 왜 사냐고? '왜'가 어딨어? 그냥 사는게 좋아서 사는 거지. 이것이 마지막 답이 될 수 있을까?

한자경

이화여자대학교 철학과 학부 및 대학원 졸업. 그 후 독일 프라이브르크 대학에서 독일철학을, 동국대학교에서 유식불교를 공부함.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재직 중.

지은 책으로는 〈불교철학의 전개〉, 〈명상의 철학적 기초〉, 〈한국철학의 맥〉, 〈마음은 이미 마음을 알고 있다 : 공적영지〉, 〈마음은 어떻게 세계를 만드는가 : 일체유심조〉 등이 있음.

깨달음의 여정에서 만난 운문사의 선지식들

진하上 / 대교과

녹음綠陰의 계절인 운문사는 사방四方이 초록 병풍으로 둘러싸여 어느 곳에 시선을 두어도 넉넉하고 편안합니다. 자연치유가 가능한 도량에서 부처님께 예경하며,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교수스님들께 도반들과 경을 배울 수 있음은 의미 있고 행복한 일입니다. 또한, 만나는 모든 이가 스승임을 알게 된다면 그야말로 날마다 좋은 날들입니다. 어느 노스님께서 절집에서는 '적응하고, 참회하고, 섭수攝受하는 삶을 살라' 당부하신 말씀은 대중생활 내내 큰 위로와 자기점검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 적응, 참회, 섭수하는 생활과 문제해결 방법에서 쉽게 저질렀던 미성숙한 해결방법인 회피. 공격, 마비의 태도에 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 회피 VS 적응

무상無常한 삶이기에 크게 기뻐하거나 슬퍼할 일이 없음에도 주어진 환경의 적응에 대한 요청과 요구가 많아질수록 반사적 거부나 회피 반응으로 또 다른 문제들이 야기됩니다. 반면, 쓰라린 시련과 고통은 주변 환경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 자기모순에 대한 자각은 곧 자기변혁으로 이어지며 관계에서 제기되는 많은 갈등은 나를 성장시키는 선지식임이 검증되는 것입니다.

정신역동적 관점에서 '회피성 성격' 의 주된 감정은 수치심이며, 이러한 수치심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 자아상과 수치심이라는 불쾌한 감정으로부터 숨고자 하는 소망 때문에 대인관계나 자신이 노출되는 상황을 회피하게 된다고 합니다. 반면, 불교는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오온五蘊의 상속' 으로 무아無我를 제시하며, 나를 앞세우고는 고苦의 윤회바퀴를 멈출 수 없다고 합니다. 관계 속의 문제들을 외재화外在化로 해결했던 지난 시간의 불편한 진실과 직면하면 모든 갈등의 원인은 나로부터 출발합니다. 시리고 아팠던 긴 성장통의 몸부림은 나와 도반스님들 모두 힘든 시기였지만 지나보니 겪고 넘어갈 여정의 하나였습니다. "입차문래入此門來 막존지해莫存知解 이 문에 들어오매 알음알이[知解]를 두지 말라." 이 글은 새길수록 참회 눈물을 짓게 하며 무상한 삶에 적응하는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두 번째 이야기 – 공격 VS 섭수

예기치 않은 좌절과 실패를 맛보는 삶에서 그 원인을 밖에서 찾다보면 남 탓, 세상 탓으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화火가 외부로 향하면 공격성으로, 자신에게 향하면 우울로 표출됩니다. 결국, 분노는 자신, 타인, 세상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주지 못합니다. 이와 달리, 주어진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과 자기반성은 문제 직면의 정직한 태도로 삶의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을 부여합니다. 결국, 아집我執은 투쟁을 유발시키며 자기성찰을 방해할 뿐입니다. 간디는 "모든 사람은 쓰라린 경험으로부터 중요한 교훈을 배우며 화를 참고, 그로인해 보존된 열을 에너지로 바꾸라. 억제된 화는 세상을 움직이는 힘으로 또다시 바뀔 것이다" 말합니다.

강원생활에서 배움의 즐거움보다 피곤한 몸을 이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시간이 늘어가자, 스스로의 원망은 휴학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소임의 책임감으로 겨우 살아가고 있는 어느 날, "스스로 한계를 긋지 말라"는 교수스님의 따끔한 경책은 힘들다는 생각마저 사치였던 그 상황에선 아픈 말이었습니다. 나를 세우면 할 수 없는 핑계가 종이 한 장이 모자라지만, 거부나 저항할 힘마저 없는 상황에선 그저 받아들임뿐입니다. 이 체험은 개념의 틀에 갇힌 나를 보게 된 잊지 못할 교훈을 주었습니다. 내 탓, 남 탓, 세상 탓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임은 지난 시간의 아픔들과 화해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꿈에서 목을 치료받은 후, 현실에서도 갑상선이 치유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체험은 한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정진력을 선물 받았습니다. 스승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잘 걸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 마비 VS 참회

불교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무명無明이며, 이로 인해 파생된 팔만사천의 번뇌는 탐진치貪瞋癡 삼독三毒으로 귀결됩니다. 이 삼독에 물들지 않음이 곧 중생의 삶에 마비되지 않는 깨어 있는 삶입니다. 수행이란 본래 불佛이라는 자기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검증해가는 과정입니다. 선가귀감의 "수행지요修行之要는 단진범정但盡凡情이요 별무성해別無聖解니라" 불이不二입장에서 시시비비는 무의미함에도 탐심은 좋음을, 분심은 나쁨을, 좋고 나쁨의 가늠이 어려운 치심은 이상함으로 분별하면서 청정한 정신을 마비시킵니다. 살면서 화내도 괜찮고, 울어도 괜찮고, 슬퍼도 괜찮습니다. 다만 어디든지 갇힌 상태는 자유로울 수 없기에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누가 나를 칭찬한들 내 불성에 무슨 이익이 있으며, 누가 나를 비방한들 내 불성에 무슨 손해가 있겠습니까?' 고통을 받아들이고 고통을 기반으로 성장하면 그뿐입니다. 상처받고 살아온 피해자란 책임전가에서, 상호의존적인 연기적 존재임을 자각한다면, 고통을 준 인연은 고마운 역행逆行보살로 전환되며, 이는 진정한 참회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지금여기' 의 삶을 살도록 합니다.

가르침은 크게 온화하게 순리대로 단계를 올려가는 섭수문攝受問과 개성과 고집이 강한 제자에겐 과격, 처벌, 욕설, 매질, 추방 등 상대를 자극과 흥분으로 몰아 지도하는 방법인 역화문逆化問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가르침은 나를 성장시키는 선지식입니다. 부끄러운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깨달음의 여행길에서 만난 운문사의 소중한 인연들에게 참회와 감사함을 전합니다. 성불하십시요! _()_

사자의 힘줄과 코끼리의 힘으로

영원 / 사집과

운문사에서의 습의를 익히며 몸은 바쁘지 않으나 마음이 바빴던 치문반. 그 1년은 내 마음 챙길 여유도 없이 마치 비디오테이프를 빨리 감기 한 것마냥 휘리릭 지나가 버렸다. 치문의 봄철은 내내 잡다한 번뇌가 올라왔고, 안과 바깥의 여러 경계들에 의해 휘둘리고, 번뇌의 물살이 거세져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러던 중 떠오른 것이 기도였다.

작년 여름. 7월의 운문사는 습하고 더웠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고 숨이 턱턱 막혔지만 도반스님과 함께 전각에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이열치열. 그 말처럼 우리는 정말 숨 못 쉬게 더운 여름날, 비 오듯 땀을 쏟으며 '대자대비민중생大慈大悲愍衆生 대희대사제함식大喜大捨濟含識' 을 시작으로 소리 맞추어 절을 해 나갔다. 이전에 했던 절기도는 주변 상황에 의해서 했지 스스로 마음을 내서 한 일이 거의 없었는데, 이때는 매일 기도 일과를 정해 놓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했다.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를 했었다.

없는 시간과 체력을 쪼개가며 일과기도를 한 덕분에 걷잡을 수 없었던 나의 번뇌들이 차츰 사그라들었고, 거센 물결에 휘둘리지 않을 중심점이 생기기 시작했다. 자꾸만 끌어당기는 업력으로부터 나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이었다. 생각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든다는 말이 맞았다. 잡다한 번뇌들이 차츰 정리되니 몸과 마음이 한결 가뿐해졌고, 집중과 선택. 그 사이에서의 판단력이 분명해졌다. 출가자로서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다져졌다.

치문반의 겨울방학은 운문사에 남아서 소임을 사는 방학이었다. 방학이라는 생각과 날도 춥고 하다보니 해태심이 마구 올라왔다. 전각이 너무 추워 매일 하는 절도 최소한의 배수만 채웠다. 체력을 보충한다는 핑계로 오로지 몸이 이끄는 데로 살았다.

그렇게 마음의 중심점이 사라지니 잡다한 곳에 관심이 갔다. 온갖 바깥 경계들에 참견했고, 나의 업들이 고삐 풀린 듯 뛰쳐나왔다. 내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방종하며 살았다. '도' 와는 영영 멀어지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정말 깨달음이 있는 걸까' 라는 생각까지 이르게 되었다. 문제가 심

각해진 것 같아 나 나름대로 신심을 증장시키고자 여러 시도들을 했었다. 행자 때부터 써온 수행일기를 다시 보기도 하고, 발심하게 되었던 책들도 다시 읽고.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 어떠한 방법을 써도 내 마음이 초발심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았다. '하다 말다 하는 공부는 열 걸음 나아갔다가 아홉 걸음 후퇴하는 것' 이라는 말이 정말 실감나게 다가왔다. 한 번 떨어진 신심을 다시 끌어올리기란 정말 힘든 것이었다.

행자 때 '신심은 어떻게 하면 생기는 것입니까?' 하고 노스님께 여쭤봤었는데 노스님께서는 '절하면 신심이 생긴다. 천 배를 하면 천 근을 들 힘이 생기고, 만 배를 하면 만 근을 들 힘이 생긴다.' 라고 답해 주셨다. 절을 좀더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단지 생각뿐. 해태의 마구니가 나를 잡아먹은 것으로 모자라 내가 해태의 마구니가 되어버렸다. 방학이 끝나고 개학을 했다. 정말 이렇게 살다가는 지옥구렁텅이에 떨어지겠다 싶어 다시 절 배수를 늘리고 일과를 꾸준히 하기 시작했다. 일단은 공부고 뭐고 일과만이라도 꾸준히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목표뿐이었다.

지금도 꾸준히 이어서 하고 있다. 덕분에 나는 삶의 기준이 세워졌고, 그에 따른 우선순위가 정해졌다. 더 이상 시시각각 변하는 내 마음에 끌려 다니지 않게 되었다. 혹여나 잠깐 흔들린다 하더라도 빠르게 제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힘이 생겼다. 사실 대중생활 속에서 내 일과를 꾸준히 해 나가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하지 못하는 이유는 백 가지가 넘지만, 단 하나의 해야 할 이유로 하고 있다.

"사자의 힘줄과 코끼리의 힘으로 판단하여 지체 없이 단칼에 두 동강을 내야 한다.
천지를 덮는 기염을 방출하고 부처와 조사를 뛰어넘는 위광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못하고 여울에 거슬러 오르는 고달픈 물고기, 갈대에 깃든 약한 새, 참죽나무에 매인 여윈 말, 말뚝을 지키는 눈먼 나귀 따위가 된다면 그것을 어디에 쓸 것인가." - 효봉스님 -

여름, 운문의 빛깔

편집부

인동초가 피었어요~
꽃처럼 순박한 스님의 미소도 함께~

감자 수확하는 날
올 감자 농사도 대성공!

사집반 야채회향날~
수레마다 싱싱한 야채가 가득~
얼굴마다 행복한 웃음이 가득~

치문반 자색날~
소박한 정성이 가득~

우리 나뭇잎 도시락 쌌어요~

저희들은 모자에 담았어요~
밭에서 따온 복분자를 보여주며
미소짓고 있다.

회주스님의 「발심수행장」 영상 특강~
온 대중이 초심으로 돌아가는 날

이른 아침 법공양을 마치고~

항복기심降伏其心

현밀 / 사교과

'불도佛道를 배운다는 것은 자기를 배우는 것이며 자기를 배운다는 것은 자기를 잊는 것이며, 자기를 잊는다는 것은 만법을 증득하는 것이다.'

앞의 글은 도겐 선사의 『정법안장』에서 불도를 따름에 대한 글입니다. 불도를 배운다는 것, 자기를 배운다는 것, 자기를 잊는다는 것으로 불교가 무엇인지 말해 준다 생각합니다. 또 이 글은 출가 전 성철 큰스님의 책 『영원한 자유』를 읽고 발심을 했던 저를 떠올리게 합니다. 책의 내용 가운데 몇 가지 기억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를 바로 봅시다. 욕망에 휘말리어 자기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큰 바다와 같고 욕망은 거품과 같습니다. 바다를 봐야지 거품을 따라가면 안됩니다."

"자기를 바로 봅시다. 자기가 본래 부처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세상 모든 중생들이 다 부처임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이렇듯 크나큰 진리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참으로 행복합니다"

자기를 바로 보면 자기 안에 부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이 깊은 가르침을 듣고 삶을 살아도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자유를 얻기 위해 출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이루는 것은 쉽지 않은 길임을 여실하게 알았습니다. 출가만 하면 무엇인가 다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불도를 이루는 그 여정은 인욕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수행을 하면 할수록 좋음과 싫음, 옳고 그름, 성냄 등 번뇌들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수행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고 늘 어긋나는 것 같았습니다.

수행하는데 왜 나는 괴로울까? 이 괴로움을 어떻게 해야 할까?
풀리지 않는 실마리처럼 마음속에 물음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괴로움이 커질수록 이 괴로움을 여의고자 하는 마음도 또한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때에 『금강경』을 공부하던 중 선현기청분에서 수보리가 세존께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보리심을 발한 보살은 어떻게 마음을 머물러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 받습니까?" 이런 수보리의 질문에 문득 '나는 어떤 마음으로 수행을 했을까' 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대중스님들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수행하고 계십니까? 저는 행복해야 한다는 마음, 이전보다 나아져야 하는 마음, 얻으려는 마음으로 수행을 했었습니다. 허망한 것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출가했는데 이전의 자신처럼 똑같은 마음으로 수행에 욕심을 내었던 제 자신을 보며 부끄러웠습니다.

또 수보리의 질문에 대해 『금강경 오가해』에서 육조혜능 스님께서는

"염념청청 명위보살念念淸淨 名爲菩薩 심무취착 명마하살心無取着 名摩訶薩 공경일체 중생 즉항복기심恭敬一切衆生 卽降伏其心" 생각생각이 청정함이 보살이요, 집착이 없는 마음이 마하살이니, 일체 중생을 공경하는 것으로 곧 그 마음을 항복 받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일체 중생을 공경하는 마음으로써 항복 받고 자신을 낮춤으로써 수행을 삼는다' 는 육조혜능 스님의 말씀을 통해 겸손하지 않았던, 아만심으로 남을 힘들게 했던 제 자신을 다시 돌아보며 반성하고 공심空心으로 수행하며 살아야겠다는 발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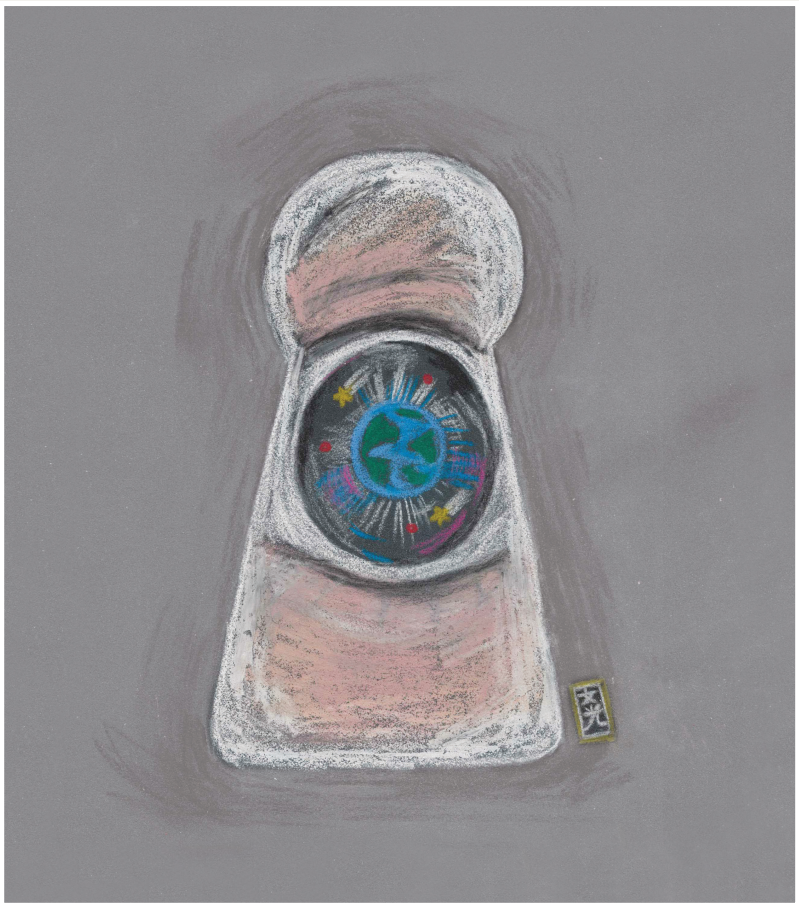
'안으로는 망념을 극복하는 수행을 부지런히 하고 밖으로는 다투지 않는 덕을 넓혀라' 이 글은 『위산대원선사경책』에서 나옵니다. 또 제 수행에 있어 가장 큰 힘을 주는 글입니다.

나를 세우면 괴로움이 생깁니다. 안으로 나라고 하는 모든 것들, 시비분별을 내려놓지 못하고, 밖으로도 나를 세우면 다툼이 생깁니다. 안팎으로 다투지 않는 것이 수행의 공덕을 쌓는 것입니다. 수행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며 알아가고, 자신을 내려놓아 다투지 않고, 모든 인연을 공경하는 마음으로써 자기를 잊어가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자기를 배우는 것이고 불도를 이루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디 하나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게 하는 곳이 없는 운문사는 힘들지만 그 속에 행복이 있고 저를 더욱 수행자로 만들어 줍니다. 이 자리에 있으매 감사하고 앞으로도 출가의 참 뜻을 잊지 않고 자신을 바로 보는 수행자가 되겠습니다. 제 법문을 들어 주신 대중스님들께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과학을 통해 본
제행무상

경문 / 사집과



色不異空 空不異色
色卽是空 空卽是色

–〈반야심경 中〉–

“보이는 세상은 실재가 아니며, 꿈이고 환이다. 만져지고 느껴지고 걸어 다니고 늙고 병드는 세상에서 사는데 이것이 인연에 의해 생긴 한바탕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물 위의 거품과 같고 그림자 같으며 풀잎의 이슬과 같고, 번갯불과 같다.” 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사는 세상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태양과 달, 별들이 있고 하늘은 푸르르고 구름은 흘러가고, 집, 빌딩, 공장, 사람, 동물 등이 서로 어우러져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의 태양은 오늘과 같고 어제의 나는 과연 같은 나일까요? 생물에서부터 무생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이 순간순간 변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은 변화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잠시도 같은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실체가 없다고 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실상을 불교에서는 제행무상諸行無常이라고 하는데요, 제행諸行이란 함께 모여 만들어진 것이라는 의미이며, 무상無常이란 변화한다는 의미로서, 즉 ‘모든 존재는 항상恒常함이 없이 변화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제행무상에 대해 과학적 관점을 빌려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세상이 고정불변의 상태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 먼저 태초에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고 생명체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뱅이론으로 보면 우주가 생성된 시점에서는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한 점에 모여 있었습니다. 대폭발 이후 쿼크, 전자 등과 같은 기본 입자가 생겨났고, 우주의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 양성자와 중성자, 헬륨 원자핵, 원자 순으로 물질이 만들어졌습니다. 초기 수소원자와 헬륨원자로 이루어진 구름이 만들어지는데 이후 중력에 의해 이 원자들이 모여 최초의 별과 은하가 탄생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도 이러한 과정에서 만들어졌고 이 지구를 터전으로 최초의 원시적인 생명체도 탄생하게 됩니다.

인간의 몸 또한 이러한 과정의 흔적을 역력히 담고 있는데요. 몸의 구성 물질을 보면 기본적으로 산소(O, 65%), 탄소(C, 18.%), 수소(H, 9.5%), 질소(N 3.2%) 등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들은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 물질들과 같은 것들입니다. 원소가 모여 분자가 되고 분자들의 결합으로 세포가 구성되고 세포들은 다시 조직을 구성하는 등등 마치 원자가 모여 별과 은하가 형성되듯, 인간이라는 소우주가 구성됩니다.

불교에서는 우리의 몸을 오온이라고 표현하는데 오온은 물질적인 요소인 색온(지수화풍地水火風 4대 요소)에 정신적인 요소인 수受 · 상想 · 행行 · 식識 4온을 합친 것을 말합니다.

구세九世 즉, 과거, 현재, 미래에 또 각각의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구세九世 동안 쌓인 업력業力을 핵심 축으로 해서 여기에 여러 가지 조건과 식識이 결합되어 가유假有의 가합태假合態로서 오온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가 성주괴공成住壞空을 겪듯 우리 몸도 생주이멸生住異滅을 겪으며 계속 변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작용은 어떨까요? 과학에서는 마음을 뇌의 활동으로 보고 있는데 뇌는 신경세포인 뉴런과 시냅스라는 구조를 통해 전기 및 화학적 신호를 주고받음으로써 기쁨과 슬픔, 분노와 행복 등 다양한 감정의 기복을 만들어 냅니다. 이러한 뇌의 작용은 여러 조건이 모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여기서 파생되는 우리의 마음 또한 무상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뇌과학이 없던 시대에도 조사들은 이미 마음이 무상한 것에 관한 혜안이 담긴 가르침을 많이 남겼는데요. 혜가와 달마 대사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 혜가가 달마 대사에게 물었습니다. "저의 마음이 불안합니다"
>
> 달마 대사가 말했습니다. "그 불안한 마음을 가져오너라. 내 마땅히 편케 해 주리라."
>
> 혜가는 곧장 불안한 마음을 찾았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지치게 했던 마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를 구석으로 몰아넣었던 마음입니다. 그걸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분명히 조금 전까지 있었던 괴로운 마음이 막상 손으로 쥐려니까 잡을 수가 없습니다. 불안함이 있던 정확한 위치도 모르겠고, 모양도 모르겠고, 이것을 거머쥘 수도 없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틀림없이 있었던 마음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당황한 혜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아무리 마음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
> "그렇지, 찾아지면 그것이 어찌 너의 마음이겠느냐. 나는 벌써 너의 마음을 편케 해 주었느니라."

미워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무상함을 모르는 어리석은 범부가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해, 가짜 인연으로 화합된 허상에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빅뱅부터 생명체와 마음에 이르기까지 제행무상의 진리를 벗어나는 것은 어디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은하계는 초마다 팽창하고 지구와 달도 자전과 공전을 쉼 없이 하며 심지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덩어리조차도 판으로 이루어져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들은 나고 죽으며 몸의 세포조차 끊임없이 생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뇌의 작용에서 본 마음 역시 신경세포들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으로 항상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것이 제행무상인 것이지요.

카를로로벨리의 존재론적 물리학 여행 '보이는 세상은 실재가 아니다' 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의 삶은 원자들의 조합이며 우리의 생각은 미세한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의 꿈은 원자들의 산물입니다. 우리가 보는 빛도 원자들로 이루어져 우리에게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바다도 가까이서 보면 파도가 넘실거리고 하얀 거품이 이는데 멀리서 보는 바다는 가상이고 물분자들의 요동만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식은 이게 '실재다' 라고 말합니다." 실재로는 바다도 파도도 원자 분자로 이루어진 조합인데 말이지요.

부처님께서는 약 2600년 전 과학자들보다 앞서 이 사실을 꿰뚫어 알고 계셨지요. 부처님은 우주만물이 연기적으로 존재하며 우주 만물 중에 홀로 독립되어 실체로 존재하는 것은 없고, 서로 의지하여 상생하면서 존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존재 자체가 오온이 화합한 것이고 상호 의존관계에 의해서 존재하는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고정된 실체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실재가 아니고 꿈이고 환이라고 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다는 말을 덧없다거나 다 부질없다는 뜻으로 잘못 알아 허무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변한다는 것은 생멸도 있지만 변화하여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현상세계의 본래면목을 바로 볼 줄 알아 업식 덩어리인 존재에 집착할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제행무상의 도리를 바로 알아 부처가 될 가능성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발원해 봅니다.

머리카락 공양
마노 / 사집과
옛날 어느 마을
우리 동네에 연등부처님 께서 오신대 !!!!!!
수행하고 있던 수메라
생사고 해간 무엇인가...
부처님께서 오신다고?!?
부처님께 보석목걸이를 공양할거야
난 비단옷
난 금괴
연등 부처님을 뵙고 수기를 받고싶어!!
그치만 난 가난한 수행자라서 부처님께 공양할게 없어 ㅠㅠ
텅텅
혹시 모르니 저기로 가봐야겠어
서문 시장
과일
생선
이앗 호떡
싱싱 과일
저 여인이 들고있는 꽃을 부처님께 공양하고싶어!
혹시 그 꽃을 제게 양보해줄 수 있나요??
좋아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뭔가요??
저랑 결혼해준다면 이 꽃 5송이를 드릴게요

하지만 전 수행자라서 결혼할 수 없어요
제 뜻은 다음생에 결혼해달라는 거였어요
어ㅋ 어ㅋ
10
거래성사
11
얼른 부처님께 가야겠어!!
12
연등불
곧 내 차례..
13
연등부처님!! 제 꽃 공양을 받아주세요!!
14
내가 부처님께 뿌린 꽃은 왜 공중에 뜨는거지??
15
수메타야 그대가 전생에 선업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
와우!!
16
벌써 돌아갈 시간이군
17
18
연등부처님께서 진흙을 밟으시겠어 ;;;;
19
제 머리카락을 밟고 지나가세요
선재 선재라
20
그대는 내생에 정각을 이뤄 부처가 되리라
21

경주 남산 불교유적 순례기

이수 / 대교과

경주는 신라, 통일신라의 도읍지로 천여 년의 문화와 역사를 간직한 곳이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유적지구가 다섯 군데나 되고, 경주 곳곳에서는 지금도 유물과 유적이 여전히 발굴되고 있어 경주 전체가 하나의 큰 문화유적지이자 역사박물관이다. 이번에 화엄반은 대중스님들의 배려로, 이 경주에 있는 남산코스로 학장스님과 함께 단오산행을 다녀왔다.

아침 6시 30분, 바쁘게 짐을 챙겨 출발, 8시쯤 남산 계곡 아래 도착했다. 동네 뒷산을 올라가는 느낌으로 오솔길로 들어서는 순간, 입구에 피어 있던 찔레꽃 향기가 산행하는 우리의 기분을 고조시켰다.

얼마나 걸어 올랐을까, 우리를 처음 맞이했던 것은 열암곡 석불좌상과 마애불상이었다. 마애불상은 2007년 발굴조사 중 우연히 발견되었는데, 현재 엎드려 있는 상태로 보존되어 있다. 넘어진 불상 아래서 바라본 마애불의 오뚝한 콧날과 옆선은 가슴이 먹먹할 정도로 압도적이었고, 동시에 전도된 모습의 불상을 봐야 하는 상황이 안타깝고 죄송스러웠다. 하루속히 복원이 이뤄지기를 발원하며 함께 반야심경을 봉독했다.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한 채, 우리는 산릉선을 따라 올랐다.

남산은 정상이 500m 남짓이라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갈수록 골이 깊고 산세가 험해지는 형세였다. 골산이라 그런지 바위가 많았으나, 신기하게도 바위가 차고 습하지 않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이었다. 그 옛날 신라인들이 암석으로 불상과 석탑을 조성한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산릉선을 넘어 신선암 관세음보살 마애좌상에 도달했다. 정상 한 켠 납작한 바위 옆에서 저 아래 강과 땅을 내려다보니 다리가 후들거렸다. 날씨가 덥지 않고, 구름이 옅게 드리워진 하늘에 바람까지 선선하게 부니 마치 신선이 된 듯 한 기분이 들었다. 마침 바로 아래 칠불암에서 참배하시는 보살님 두 분이 우리를 향해 반갑게 손을 흔들어 주고 계셨다.

마애불좌상은 구름 위에 앉아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머리에 삼면보관三面寶冠을 쓰고 있어서 보살상임을 알 수 있었다. 얼굴은 풍만했고 오른손에는 꽃을 잡고 있었으며, 왼손은 가슴까지 들어 올려져 있는 모습이었다. 지그시 감은 두 눈은 깊은 생각에 잠긴 모습으로 구름 위에서 중생에게 설법하기 위해 살펴보고 있는 듯했다.

학장스님과 화엄반 모두는 관세음 마애보살반가상과 함께 기념사진을 남기고, 바로 아래 산비탈을 따라 칠불암으로 내려왔다. 높이 2m가 넘는 네모난 돌기둥에 새겨진 사방불과 그 뒤 북면에 있는 바위에 새겨진 삼존불을 일컬어 모두 7불이 계셔 칠불암이라고 한다. 본존불의 거대한 좌상은 얼굴이 풍만하고 부드럽고 건장하며, 아주 당당하고 위엄 있어 보였다. 돌기둥 앞면은 동쪽을 향하고 있어 처음 약사여래불을 시작으로 뒷면에는 아미타불상이 있었다. 자연바위기둥에 불상을 조각한 사실도 신기했지만, 아미타불은 다른 3면의 불상과 달리 얼굴조각이 평범했고, 조금 야윈 듯한 인간적인 모습이었다. 본존불과 마주하고 있는 아미타마애불상을 보면서, 그 옛날 신라인들의 불심의 깊이에 다시 한 번 존경과 감탄이 우러나왔다. 그리고 이 보물과 같은 불교유산을 이어 받을 수 있게 해 준 것에 무한한 감사함을 느끼며, 과거 스님들의 그 정신을 이어받아 불교를 융성시키고 싶다는 마음과 함께 다시 발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칠불암 참배 후, 정갈하게 손질된 듯한 대나무 오솔길 계단을 따라 산 아래로 향했다. 돌담과 기와를 얹은 정겨운 마을과 연담을 지나 중흥사에 도착했다. 몇 시간의 산행으로 허기를 느끼던 즈음,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신 분들은 도반의 은사스님과 사부대중들이셨다. 화엄반 한명, 한명 환한 얼굴로 반겨 주신 중흥사 대중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린다.

운문사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경주 남산에서 만났던 마애불과 조각상을 떠올리며, 이곳으로 산행을 올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더 없는 행복과 감사함을 느꼈다. 그리고 남산 골짜기 곳곳에 있던 폐탑들이나 남산 바위 위에서 마모되어 가는 불상들이 떠올라 안타까운 마음도 올라왔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모습 자체가 고요히 천년 세월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니 그 자체로 더 없이 소중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산행 내내 보았던 이러한 많은 불상 불탑들. 투철한 불심과 지혜로 예술을 그려낸 신라인이 존경스럽기만 하다. 그 옛날 신라인들이 그러했듯, 나도 이 나라가 불국토로 장엄되길 발원해본다.

남산의 역사 탐방을 어찌 반나절에 다할 수 있을까, 기회가 되면 못 다한 신라의 역사 탐방로를 다시 거닐고 싶다. 이번 산행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 귀중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이 산행을 가능하게 해 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

A, B, C!
환경을 지키는 작은 시작

– 제70차 동련 전국 지도자 연수회 –

현지 / 사교반

세계를 흔드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인 중 하나가 환경오염이라는 연구 결과와 2030년 지구에 한 조각의 빙하도 남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예측이 나왔다. 이제 더 이상 환경 문제가 남의 일이 아니게 되어버린 지금, 환경을 지키기 위해 불교계에서도 여러 활동의 날갯짓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지난 6월 12일 운문사에도 그 날갯짓이 닿아 '제70차 동련 전국 지도자 연수회' 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회의 주제는 'A(Act) B(Buddha) C(Choice)로 그린 하루' 다. 아이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토대로 더 쉽게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심어 주고 실천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연수회는 대면과 비대면으로 동시에 진행되었는데, 운문사에서는 Zoom을 통해 비대면으로 연수회에 참가했다.

먼저 〈세상에게 배우는 인욕바라밀〉이라는 주제로 정목 스님의 강의가 있었다. 정목 스님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전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부터 바꾸어야 하며 이타심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 또 '통렌 명상' 을 알려 주시며 잠시 실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통렌 명상은 마음을 비워내는 일반적인 명상이 아니라 내 주변, 나아가 지구환경과 모든 유정 무정의 고통을 내가 받아들이고 정화해 다시 내보내는 명상이다.

두 번째 강의 〈R.U.Doing?〉에서는 재활용(Recycling)과 새활용(Upcycling)에 대해 배웠다. 새활용의 예시로 티셔츠 에코백, 양말목 공예 등이 소개되었다. 그중 양말목으로 화분과 장난감을 직접 만들어보기도 했다.

마지막은 〈나비의 그린 라이프 스토리〉라는 강의로 아이들이 환경 문제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낱말 퍼즐, 퀴즈, 숨은 그림 찾기 등을 진행했다. 운문사는 비대면 강의였기 때문에 Zoom의 주석 기능 등을 이용했다. 특히 숨은 그림 찾기는 쓰레기를 활용한 명화 작품으로 했던 점이 매우 신선했다.

부처님께서는 불이不二를 강조하셨다. 즉 너와 나, 우리와 환경도 둘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늘 '언젠가' 라는 말 뒤에 숨어 바쁘다는 핑계로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은 미루고 나의 편안함만 우선시했다. 많은 사람들 또한 그럴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세계에 코로나라는 큰 질병을 가져왔고 북극곰의 집을 잃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것은 우리가 지은 업의 과보를 받는 것이며 이런 지금의 상황을 보며 우리는 인과에 단 한 치의 오차도 없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 되새기게 된다.

그럼 이런 상황에 절망하고 지켜보기만 해야 하는 것일까? 부처님의 말씀에 그 답이 있다. 바로 정목 스님의 강의에서 강조한 이타심, 즉 '자비' 다. 우리가 불이의 바탕에서 자비의 마음을 내어 나를 돌보듯 환경에 관심을 기울이고 돌본다면, 그 노력의 열매가 열려 우리에게 지금 예견되는 미래와는 또 다른 결과를 안겨 줄 것이다.

그동안 여러 번 동련 연수회에 참가했었지만 이번 연수회는 유독 인상적이다. 외부 강사의 도움 없이 학인스님들의 힘만으로 준비한 운문사 첫 비대면 연수회인데다, 주제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과 사회 문제를 연결해 아이들뿐만 아니라 나도 현실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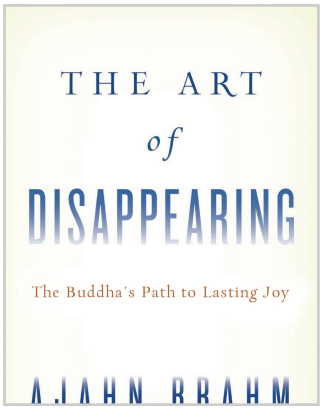
자연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다. 인간은 자연을 잠시 '빌려 쓰는' 것뿐이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자비로운 부처님(Buddha)의 마음으로 환경을 위한 선택(Choice)을 하고 실천(Act) 하는 것.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한 작은 시작이 될 것이다.

아잔 브람 스님의 「놓아버리기(The Art of Disappearing)」를 읽고

선경 / 운문한문불전대학원

Aj. Brahm(아잔[1] 브람)은 캠브리지 대학교의 물리학과를 졸업 후 태국의 살아 있는 부처님으로 유명하신 아잔 차 스님의 제자로 23세에 출가하셨습니다. 영국계의 남방불교 스님이자 현재 호주 보디냐나 사원의 선원장이십니다. 그분의 수많은 베스트셀러 책들 중 "놓아버리기"(The Art of Disappearing)를 여기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책은 매년마다 9박 10일의 리트리트 기간 동안 (일반인들을 위한 안거기간) 법문하신 것을 엮은 것입니다. 저는 이 책 가운데 서문을 간추려 번역하여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고품와 nibbida



부처님의 가르침인 사성제四聖諦 중 그 첫 번째가 고제苦諦인데요. 아잔 브람은 고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 우리는 완벽한 가정과 직장을 원하고 우리가 계획한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길 원하지만 세상은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러니 직장에서 또는 명상을 하면서도 어떤 고통이나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한 가지 기억하자! 원래 세상일이 그렇다. 그래서 괴롭다. 내 가정, 내 건강, 내 마음 그 어떤 것도 바로잡으려 해 봤자 내 뜻대로 풀리는 일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내려놓는 일을 해야 한다.
>
> 부처님께서도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셨지만 이것들은 결국 피할 수 없는 고임을 아셨다. 고를 온전히 이해하는 것만이 이 고의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인 것이다. 여기서 이해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니 그냥 받아들이는 태도가 아니다. 고통의 문제를 참으로 이해한다면 도망가려고 하거나 될 대로 되라는 태도로 문제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nibbida'(팔리어 ; 혐오)를 경험하게 된다. 삶을 바꾸려고 들거나 있는 대로 받아들인다는 식의 자세로는 고통스런 삶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삶에서 한 발자국 물러서서 내가 지금 경험하는 일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바른 태도이다.

청정도량 운문사에 모여 수행하는 우리들에게도 불만족스러움은 늘 있습니다. 발이 붓고 아파도 고무신을 신어야 하고 잠이 쏟아져도 발우를 펴야 하고 미운 도반과 말을 섞어야만 하는 등등 말이죠. 바로 그

부정적 감정이나 생각이 올라오는 그 찰나를 놓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면 혐오감으로 들어가는 첫 발걸음을 시작한 것이라 봅니다. 세상일에 혐오감을 느껴 떨어져 나온 자리에서 진실로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공성空性을 체득할 수 있는 것이지요.

내 경험세계에 함몰되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나 '깨어 있음/알아차림' 을 유지하는 것. 그렇게 맑게 깨어난 정신 상태를 위해 저흰 오늘도 열심히 사경, 독송, 예불, 염불을 하는 것이겠죠!

내 일이 아니다!

그러면 어째서 우리는 내가 지금 경험하는 일에 관여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스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 잘 관찰해보면 삶은 우리의 통제 밖에 있음을 알게 된다. 통제 밖에 있다는 것은 곧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란 뜻이다. 어떤 음식이 주어지든, 오가는 사람들이 누구이건, 오늘의 날씨가 어떻든 "내 일이 아니다"라고 해보자! 남들이 내게 뭐라 하든 그건 내가 걱정할 바가 아니라 그들의 업일 뿐이다. 남의 말에 쉽게 상처받고 예민한 사람들이라면 부처님이 라훌라를 위해 해 준 충고를 기억하길! 사람들이 땅에 똥, 오줌을 싸고 토하고 태우고 쓰레기를 버려도 땅은 불평하지 않는다. 또한 땅 위에 정원을 가꾸고 사원을 지어 아름답게 꾸민다 해도 땅은 반응하지 않는다. 그러니 땅과 같이 되어라.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에 동요되지 말아라. 너를 칭찬하든 비난하든 그건 그들의 일이다. 남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든 싫어하는 말을 하든 '내 일이 아니다' 란 자세를 취하면 화낼 일도 없을 것이다.
>
> 몸이 아플 때도 마찬가지다. 몸이 스스로 돌볼 수 있도록 내버려둬라. 몸에 신경 쓸수록 아픈 곳도 더 많아진다. 가만히 앉아서 몸이 사라지도록 내버려두면 스스로 치유가 되곤 한다.

저희 운문사 회주스님도 감기 걸리셨을 때 콧물을 흘리시고 기침을 하시면서도 꽃 심기, 사경, 독서 등의 일상을 쉬지 않으셨기에 시자스님이 걱정하니까 "감기가 뭐에요. 난 감기같은 거 몰라요." 라고 하셨다는 말이 기억납니다. 몸은 몸이 할 일을 할뿐.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음을 몸소 보여주신 좋은 예입니다.

나의 감정과 생각에 휩쓸리지 않고 중심을 잡아 여법하게 한걸음씩 내딛어 그 고요함 속의 지극한 행복을 누리고 그리하여 내 뒤를 따라오는 이들도 함께 행복하기를! 그리고 이분의 법문이 제게 그러했듯 코로나로 지친 이들에게도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잔 브람의 법문은 쉽게 찾아 들을 수 있고 실제로 불교용어는 일반인들을 위한 법문에서는 언급하지 않으시지만 항상 재미있는 비유와 뜻 깊은 은유적 이야기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생하게 전달하시기에 전 세계인들의 가슴을 법비로 촉촉히 적셔 주십니다. 세계적 명상의 대선지식이시기에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설하시지만 실로 그 사라짐이라고 표현하신 공을 체득하기란 말처럼 쉽지 않음을 우리 모두 절감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선지식들께서 세계 곳곳에서 계속하여 법고를 울려 주시는 한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음을 믿고 삼보의 깊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정진할 것을 다짐하며 이 글을 마무리 합니다.

---

1) '아잔' 은 태국어로 우리나라의 '스님' 이란 존칭에 해당한다고 여기시면 됩니다.

에어컨을 켤 권리?

공기는 물과 마찬가지로 공공의 것이다. 일부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에어컨이 작용하는 방식을 보면 온전히 독점하는 방식이다. 평등하게 공기를 공유하는 구조가 아니라 문을 닫고 각자 독점적으로 특정한 상태의 공기 즉 차가운 공기를 차지하는 식이다. 에어컨이 있는 이는 시원함을 누리겠지만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는 누군가는 원래 자연 상태에서 감당해야 하는 정당한 몫의 더위보다 더 많은 더위의 고통에 노출된다. 고통을 넘어 이제는 생존까지 위협받고 있다.

에어컨은 원래 상품의 보호를 위해 산업시설에서나 사용되던 시스템이었다. 사람을 시원하게 하는데 쓴다는 것은 나중에 고안된 생각이었다. 하지만 상용화되어 필수품 반열에 오르는 데는 채 반세기도 걸리지 않았는데 전후 자본주의의 물결을 타고 건설과 전력산업에 엄청난 호재가 된 덕이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어느덧 에어컨 사용이 자연스럽게 정착되었는데 에어컨 없이 여름을 나기 힘들다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 되었다. 물론 우리에게는 온도 적응 향상력이라는 진화된 기능이 있지만(사실, 에어컨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거의 모든 인류가 이런 방식으로 살아왔다), 버튼만 누르면 쾌적한 공간이 마술처럼 만들어지는데 누가 이 마술을 마다하고 애써 땀 흘리며 더위를 감내해 내겠는가? 이제는 산중의 사찰에까지 에어컨이 구비되어 사용되는 것을 보면 그 인식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다.

하지만 이대로 마냥 사용할 수만은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에어컨 사용에 드는 엄청난 전력 소모와 냉매제 문제는 단기간에 우리를 파국으로 몰고 갈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현재 이 악순환의 고리를 깨는 유일한 방법은 에어컨을 덜 쓰거나 안 쓰는 것이지만 이에 대한 현실적 논의는 전무하다.

이러한 현실의 바탕에는 에어컨에 길들여진 우리 자신과 이로부터 상업적 이익을 취하는 산업들의 집단적 이기주의와 무지가 깔려있다. '미국인들에게 에어컨은 필요한가?' 라는 질문을 던진 한 월간지의 글이 분노 섞인 질탄과 힐난의 대상이 된 것은 이러한 인식을 반영하는 단적인 예이다. 사람들에게 에어컨은 생존을 위한 필수품이며 박탈당할 수 없는 당위적인 권리인 것이다. 하지만

좀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숙고해 볼 때 우리에게 에어컨을 사용할 권리라는 것이 애초에 존재하기는 하는 걸까?

공기는 물과 마찬가지로 공공의 것이다. 일부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에어컨이 작용하는 방식을 보면 온전히 독점하는 방식이다. 평등하게 공기를 공유하는 구조가 아니라 문을 닫고 각자 독점적으로 특정한 상태의 공기 즉 차가운 공기를 차지하는 식이다. 그리고 찬공기를 내 공간에 유지하는 대가로 바깥은 그 만큼 더워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결과적으로 에어컨이 있는 이는 시원함을 누리겠지만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는 누군가는 원래 자연 상태에서 감당해야 하는 정당한 몫의 더위보다 더 많은 더위의 고통에 노출된다. 고통을 넘어 이제는 생존까지 위협받고 있다.

그래도 내 돈으로 전기요금을 내고 쓰는 것이니 조금이라도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할 수 도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신이 내는 고지서에는 평등하게 주어진 공기를 마음대로 골라 독점해서 써도 되는 권리에 대한 비용은 들어 있지 않다. 그리고 그 특정한 공기를 독점해서 씀으로써 다른 생명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에 대한 비용 역시 들어 있지 않다. 설령 들어 있다 하더라도 생명의 고통에 대한 값이 한낱 고지서의 누진세에 붙은 전기요금으로 감당이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이는 사실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주지 않는 것을 취하는 투도偸盜, 즉 도둑질의 행위에 가까우며, 살아 있는 생명을 해하는 살생殺生에 가까운 행위이다. 에어컨이 가동되지 않는 자연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몫에 해당했을 시원함을 동의 없이 내 공간에 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투도에 해당되며, 에어컨의 사용이 초래하는 환경문제들로 여러 생명이 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살생에 해당한다.

그리고 수행자라면 아무리 덥다 해도 부처님이 사셨던 인도보다 더웠을까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사실 지금 우리가 겪는 폭염 온도는 인도 북부의 일상적인 기온에도 못 미치는 온도이다. 덥다고 해도 인도만큼 더운 것도 아니고 아프리카만큼 더운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그런 나라들보다 에어컨 보급과 사용률이 높다. 정말 덥다는 기준이 무엇인지도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스위스와 다른 몇 몇 곳들처럼 에어컨 설치와 사용에 대한 규제와 제한이 생길 때까지 에어컨 사용에 대한 것은 오롯이 개인적 선택의 영역이다. 매번 찾아오는 여름마다 좀 덥더라도 온도 적응력이라는 내재된 능력을 쓸지, 아니면 다른 사람 몫의 찬 공기를 탐욕스럽게 취해서 지구를 점점 뜨겁게 하며 시원한 여름을 보낼지 선택은 스스로에게 달려 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시원한 여름을 택하기로 했다면 이 한 가지 사실은 기억해 주길 바란다. 당신이 에어컨 버튼을 누를 때 마다 당신이 일조한 그 더위 때문에 누군가의 목숨이 오고 가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말이다. 특히 당신이 불투도와 불살생계를 지켜야 하는 수행자라면 말이다.

▲ 개학공사

▲ 단오 산행

▲ 차례법문

▲ 대자원법회

▲ 율주스님 특강

운문소식

- 6월 8일 여름철 개학공사 및 죽비전달이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6월 12일 제70차 동련 전국 지도자 연수회가 'A(Act) B(Buddha) C(Choice)로 그린 하루' 를 주제로 선열당에서 줌Zoom을 통해 비대면으로 열렸습니다.
- 6월 14일 단오 산행이 있었습니다. 화엄반스님들이 진광 학장스님을 모시고 경주 남산 불교유적을 순례하였습니다.
- 6월 25일 여름철 첫 자자가 있었습니다.
  일진 율주스님을 모시고 한문불전대학원생 스님들이 동화사 법화보궁에 다녀왔습니다.
  치문반 자색이 있었습니다.
- 6월 30일 운문사 교수스님들의 특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회주스님의 「발심수행장」 영상 특강이 선열당에서 있었습니다.
- 7월 3일 법공양이 있었습니다.
- 7월 9일 차례법문이 저녁 예불 후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법사스님: 화엄반 진정, 진견 스님. 사교반 현밀 스님. 사집반 범덕 스님. 치문반 승연 스님)
- 7월 10일 'Zoom으로 만나는 대자원 법회' 가 있었습니다. 대자원 아이들과 학인스님들이 영상으로 만나 함께 게임도 하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 7월 15일 교수스님 특강 두 번째로 일진 율주스님의 「명성 회주스님 운문사 주석 50년-운문사의 의식주」 강의가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7월 19일 원두 소임인 사집반 스님들이 직접 기른 싱싱한 야채들을 대중스님들에게 회향하였습니다.
- 7월 24일 〈ZOOM으로 만나는 어린이 여름불교학교〉가 '다함께, 다르지않아요, 다르마를 배워요' 라는 주제로 선열당에서 2시간 동안 열렸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6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찬불가, 율동, 퀴즈, 명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 7월 30일 여름철 포살이 영덕 학감스님을 단주로 청풍료에서 있습니다.
- 8월 2일 여름철 마지막 자자 및 방학공사가 저녁예불 후 청풍료에서 있습니다.
- 8월 3일 여름 방학일입니다. 9월 8일 개학예정으로 방학기간은 36일간입니다.

도와주신 분

• 송암사 • 김인태(붓다선원 법등) • 노기용 • 배종옥 • 윤금자
• 이유진 • 이정숙 • 정연식 • 정해옥 • 조서영
• 조정일(대인경) • 조현우 • 최희영 • 하옥희

※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雲門』誌 발간에 도움을 주실 분은 아래의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체국 701839-01-000335, 예금주 : 운문편집실)
* 주소가 변경된 분은 편집실로 연락 주십시오. ☎ (054)370-7139

운문사 오백전 벽화

목우牧牛

불유경유 유자심생 不由境有 唯自心生
경계로 인하여 (진망眞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마음이 일으켰을 뿐이다.

– 곽암 선사 십우도 中 목우牧牛 –

* 「자유기고」에서는 전국 학인스님들의 글을 받습니다.
* 「호거산 운문사」에서는 운문지 독자 후기, 운문지에 관한 에피소드 등 독자의 소리를 기다립니다. 많은 관심과 투고 바랍니다.
* 운문사에서 사리암 기도영험록을 제작합니다. 사리암 나반 존자님 기도를 통해 가피를 얻은 불자님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054)372-8800

과수게
(過水偈)

부디 다른 것을 쫓아 구하지 말라
자기와는 점점 더 멀어질 뿐이다
내 이제 홀로 걸어가는데
곳곳에서 그와 마주치네
그가 이제 나 자신이요
나는 지금 그가 아니라네
모름지기 이렇게 터득해서 알아야만
비로소 진여세계에 계합하리라
—동산 양개화상—

雲門寺僧伽大學

38368 경북 청도군 운문면 운문사길 264 雲門寺 / 편집부 (054)370-7139 / 종무소 (054)370-7100 / http://www.unmunsa.or.kr

[운문·계간] 여름호 · 통권 제156호 · 2021년 7월 30일 발행 · 등록 1995년 3월 29일 · 등록번호 경북 바-01008 / 발행처 · 운문사승가대학 / 발행인 · 명성(전임호)
고문 · 원법 / 편집 · 운문사승가대학 편집부 / 편집장 · 범응 / 편집위원 · 도현, 원영, 도솔 / 사진 · 편집부 / 표지사진 · 범응(능소화 구름) / 삽화 · 문광, 영원, 원경下
/ 편집디자인 · Design MARU(디자인 마루) (053)426-3395